

‘아래로부터’ 의견수렴해야

단위 홈페이지 활성화 · 책임의식 강화 필요

-학생회, 이제는 변화해야-

학생회 선거가 다가왔다. 그러나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커지면서 투표를 저조하고 학생회 구성 무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사 대학부는 학생회 소외의 원인이 무엇인지 학생회 운영구조 등을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법규경

- ① 선거공약 이행
- ② 의견수렴절차
- ③ 예산의 투명성
- ④ 간담회

흔히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로 “학생회 사업이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학생과 학생회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본사가 지난 1350호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회 무관심의 원인으로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25.14%)’이 ‘개인주의 편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생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논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27.37%를 차지한 바 있다.

현재 학생회 사업은 각 단과대 학생회장이 모이는 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거나 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학생 대표자들이 과연 열린공의 ‘대표성’을 띠 수 있는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정유진(영문3) 양은 “학과 학생회장이 누군지조차 모르며 학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아닌 대표자들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경영4) 총학생회장은 “개개인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체계와 구조가 부재하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생회장이 없는 학과가 많고 과·학부 학생회의 의견수렴 과정인 단과대 운영위원회(단운위)도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총학생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총학생회장과 매주 수요일에 만나기’를 진행했으나 형식적이었으며, 대부분의 단과대가 개설한 홈페이지 역시 일부 학생만의 공간일 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구도서관 공간배치와 관련해 나의 주장 등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대표자 회의 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전무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개설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과 사업에 대해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등 내용을 다양화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결과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해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확인이 안 된 사실이 대자보 등을 통해 알려지는 문제를 막을 수도 있다. 얼마 전 출준위 졸업앨범 재계약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요구심을 증폭시킨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생회장까지 확대된 학생대표자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표자들이 책임성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55@dongguk.edu

다양한 ‘학술의 장’ 펼쳐져

전쟁 주제로 한 학술회의 등 활발 ... 오는 12월까지 계속돼

이번주 학내 곳곳에서 여러분야의 학술행사가 열려 학술적 담론이 다양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쟁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먼저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제23차 한국문화학술회의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연구소(소장=김태준·국어국문학)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조은(사회학) 교수의 ‘차이있는 전쟁의 기억, 여성들의 이야기는 왜 침묵되었을까’에 대한 주제 발제에서 이은수(한양대 국문국문학) 강사와 3명의 논문발표, 종합토론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표 참조>

한편, 철학과 학술제 ‘디오니소스’가 오는 14일 오후 5시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를 주제로 김

씨의 초청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며 흥미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정치외교학과 학생 30여명이 준비한 제15회 대동민국 모의국회가 오는 12일 오후 6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폐허가 된 바그다드 다음은 평양인가를 주제로 하는 이번 모의국회는 △파병찬성·반대 토론회 △삼별초 관련 고전사극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주(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은 “올 한 해 이슈가 된 이라크 파병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학과 학술제 ‘디오니소스’가 오는 14일 오후 5시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를 주제로 김

<표>

	사회	발제자 및 토론자	발표주제 및 논문
제2부 (오전 11시~ 오후 3시(30분))	유림해(연구원)	조은(사회학)	차이있는 전쟁의 기억 ...
	김춘식 (국어국문학 강사)	이은수(한양대 국어국문학 강사)	삼하전역과 김정근전
		김재용(원광대 국어국문학)	... 삼하전역과 삼하사비
제3부 (~ 오후 5시(30분))	박순성 (북한학)	권명아(연세대 국제연구원)	중일전쟁과 한국문학
		한명기(명지대 사회)	전쟁의 기억과 역사의 재구성
		이지양(성균관대 한문학)	
		와타나베 나오키(고려대 국제어학원)	

영건 서강대 강사 강연과 ‘조선인물성론에 나타난 이기관계에 대하여’와 ‘도가와 불교의 차이점과 접합점’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내일(11일) 일본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오후 1시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을 주제

로 열리며, 오후 7시 문화관 K303 물성론에 나타난 이기관계에 대하여’와 ‘도가와 불교의 차이점과 접합점’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학술행사는 오는 28일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 등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dmz@dongguk.edu

대학원, 본교 출신 입학금 면제

국내 최초 시행 ... “대학원 활성화 기대”

2004학년도부터 본교 출신으로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이 면제된다.

이는 본교 출신 학생 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석사과정=본교 학부과정(경주캠퍼스 포함) 졸업 후 1년 이내 △박사과정=본교 석사과정 마친 후 1년 이내 입학하는 학생이다.

단, 영상정보통신대학원과 특수

대학원 진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학부에서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하는 제도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대학원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 발기

본교 등 6개 대학 ... “불교학 발전 위한 것”

본교를 비롯한 금강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등 6개 불교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이하 도서관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중앙도서관에서 발기회를 가져 앞으로 불교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협의회는 불교학 발전과 포교를 위한 목적으로 가상공간

에 원문 DB(Data Base)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도서운용을 할 예정이다.

도서관협의회는 다음해 2월 6일 창립총회를 갖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체육회, 감사패 수여
농구부 은메달 획득 기념

경북체육회(회장=이의근)가 지난 6일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본교에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이는 본교 농구부가 경북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해 이뤄진 것으로, 홍기삼(국어국문학)총장이 감사패를, 체육실장이 공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발판삼아 동계훈련을 열심히 해 다음 대회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인사 단행

야구부감독 교체 등 4명

본교가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5일 이뤄진 전보인사는 △체육실 체육부=정병경 △교무처 학생선발실=전병진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조의성이다.

또한 김학용(체육71졸) 씨가 지난 1일 본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했다. 김 감독은 본교 야구부 출신으로 인천 동산 고등학교와 본교에서 감독·코치 생활을 한 바 있다. 이번 교체는 6년 동안 야구부를 맡던 한대화 감독이 프로야구 삼성 코치로 선임돼 이뤄진 것이다.

공간재배치위원회 열려

동국관·문화관 등 공간활용 논의

공간재배치위원회(위원장=이영환·경제학)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기획인사처장실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유영민(경영4) 총학생회장이 학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구도서관 2층 공간 배치와 멀티미디어실 확충 △법과대 이전에

따른 동국관 공간활용 △불교대·불교대학원 이전에 따른 학술문화관 공간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법과대와 불교대 이전에 따른 기존 공간의 활용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 발전방향 제시 ⑤ 교수처우(해설보도면)

보리소

자연 불성과

생명 공동체

온 세상은 가을 빛으로 물들어 가고 낙엽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도심의 단풍 잎들은 공해에 시달려 자연스러운 귀환이 되지 못하는 가을을 아파하고 있다. 어떤 생명체도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화가 깨지면 생리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행히 인류는 환경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고 생태윤리의 실천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불교와 생태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래 생태학은 인문학과는 다른 생물학이나 지질학 계통의 학문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으나 이제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양종교에서는 외형적인 유행식의 생태학보다 더 본질적인 접근 방법인 ‘생명학’을 가르쳐왔다. 인간과 사회와 자연은 본래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인드라의 보석 그물망’과 같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드라는

그물 속에서 수많은 각을 지닌 보석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고 있듯이, 모든 존재와 생명은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과 공존해야 할 존재라기보다도 종교적인 성스러운 자체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무정(無情)도 불성이 있으며 초목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연은 곧 불성이며, 우리의 국토 산천은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므로 생태윤리 실천의 첫걸음은 우리가 그 안에 태어나 살고 또 돌아가야 할 삶의 태반인 자연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연습을 되풀이하는 데 있다고 본다. 스스로 살아 있는 존재인 우주 속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깊은 명상이 없이 ‘생명학적 생태학’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김용표
불교학과 교수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수업시간 지키기’는 교수와 학생간의 약속입니다

잡은 휴강, 강의시간 임의 단축 ...
지각, 수업 중 나오기 ...
당신은 혹시 강의 시작과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좋은 수업’도 없습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6~7면 2003학생회 선거



학생회 선거가 돌아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에 선거 임후보자들의 공약과 대안을 통해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4면 자취생의 권리

자취·하숙·고시원생들이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권리를 알아본다.

11면 온라인 속 매니아 ‘페인’

특정 문화에 열광하는 네티즌 ‘페인’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기획사 위약금 뒤늦게 지급

학생회 능력 대응 ... 사건해결과정에 대한 평가 진행돼야

새터 보상금 지급 분석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가 지난 2월 진행된 새터 당시 기획사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받았으나 각 단과대의 논의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획사는 노후한 차량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해 위약금을 지급했지만 예술대가 "위약금이 부족하다"며 새터비를 납부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 7일 예술대가 "요구하는 보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미지급액을 납부함으로써 조만간 △사과대 △법대 △생자대 △예술대 등 새터 13인 학생들에게 위약금이 지급될 예

정이다.

그러나 이번 새터 분배 해결 과정에서 각 단위 대표자들의 책임감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월 새터 당시 총학생회가 새터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몇 차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학기 들어 두차례 정도 논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조천호(법3) 법대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총학생회가 각 단과대로 학생 건부의 장학금을 모아 미리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구

성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전무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유재명(생자대) 군은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진행과정에 대한 차례도 알리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학생회의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능력대응은 보험회사측과의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유스호텔에서 식사를 한 학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병해 보험회사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3일에서야 명단을 제출했다. 더욱이 생자대의 경우 아직 명단을 파악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더욱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새터 사고로 참가자의 7~80%가 구토, 설사 등을 앓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각 단과대 학생회는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해결 후 그 과정에 대해 알리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참봉 소모임 '어깨동무' 회장을 만나

"지속적인 봉사활동 중요"

6년간 리라보육원 등 사회보호시설 방문

동국인이려면 누구나 한 번쯤 참사람 봉사단(이하 참봉)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참봉은 33시간 봉사를 하고 학점을 이수 받는 것으로 활동을 끝내게 된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6년 동안 이어져 온 참봉 내 소모임 '어깨동무'의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어깨동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전유진(인철3) 군은 "많은 사람들이 참봉 활동을 봉사보다 학점을 얻기 위해 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말했다. 어깨동무는 지난 98년 5월 '불우이웃돕기'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져, 3년 전 '어깨동무'로 개칭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신불구인 장애자, 독거·치매 노인, 가솔소녀 등을 방문해 도왔으며 요즘은 '리라보육원'을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전 군은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힘든 점으로 "처음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깨동무는 올해 현대캐피탈에서 주최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계획서 공모에 당선돼 15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들은 상금으로 가솔소녀의 집인 '마자벨로'에 학습자료를 구입해 기증했고 추석에 중구 관내 독거 노인을 방문해 용돈을 지급했으며 오는 22일에는 리라보육원생들과 강원도 일대의 유적지 탐방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학내에서는 '헌혈 캠페인' '재활용품 바자회'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 군은 "현재 참봉단원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봉사활동에 의욕을 갖는 사람이 증가했지만 책임의식은 부족한 것 같다"며 봉사활동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길 바랐다.

이와 관련해 전 군은 "현재 참봉단원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봉사활동에 의욕을 갖는 사람이 증가했지만 책임의식은 부족한 것 같다"며 봉사활동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길 바랐다.

이와 관련해 전 군은 "현재 참봉단원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봉사활동에 의욕을 갖는 사람이 증가했지만 책임의식은 부족한 것 같다"며 봉사활동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길 바랐다.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중선위원 공개모집 총학생회 선거 관련 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수욱·화공4, 이하 중선위)가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중선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된 중선위원은 36대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개표, 투표용지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선착순이다.

이와 관련해 임수욱 중선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의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문화연수생 방문 6일간 수업참관 등 활동

해외자매대학인 일본 삿포로 대학 학술문화 연수생 8명이 오늘(10일)부터 6일간 본교를 방문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간의 문화적 교류를 넓히고자 마련된 것으로 △한국어 공부 △영문학·일본학 수업참관과 독립기념관, 남산 등 서울 시내 방문 등의 일정을 보내게 된다.

이들은 머무는 동안 본교 재학생 정세환(국제통상3)을 비롯한 8명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이다.

기초과학 연구사업 설명회 정부 지원방향·연구동향 등

한국과학재단 진동식 기초연구단장이 기초과학 연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4일 원흥관 E103 세미나실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방향과 최근 연구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과대 공과대 정산대 등 5개 단과대의 교수와 조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연구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속학과에 관계없이 관심있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의토익·패스제 접수 오늘(10일)부터 4일간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모의토익과 영어패스제에 적용되는 토익시험 접수를 오늘(10일)부터 4일간 받는다.

시험은 오는 15일 오전 9시 50분부터 해화관 LAB실에서 진행되며 응시료는 4천원이다. 단, 2차 가을학기 특강 수강생은 모의 토익시험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어패스제를 충족하고 있는 학생이 적다"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다과대 풍물패 연합(회장=정필수·불교2)은 지난 7일 단 흥백 짚은 가락 ... 해광장에서 '관국한마당'을 진행했다. '미운 곳의 재해석'을 기조로 호남의 필봉국을 재현한 이번 공연은 많은 비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즐거운 진지분위기를 연출했다.

mh705@dongguk.edu

총대·졸준위 후보자 등록 연장

11일까지 ... 동연선거 등록 14일까지

총대의원과 졸준위 선거 후보자등록이 내일(11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됐다.

이는 등록마감일인 지난 7일까지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후보자 추천은 오늘(10일)부터 가능하다.

입후보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총대의원회 의장 입후보자는 대의원 30인 이상, 졸준위 위원장 입후보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20대 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자등록이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학생회관 1층 동아리연합회실에서 진행된다.

입후보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재적 동아리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편, 총여학생회와 8개 단과대는 후보자등록을 지난 5일로 연기했으나 등록한 후보가 없어 다음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성폭력대책위원회 열려

반성폭력학칙 시행세칙 가안 논의 등

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이관제·통계학)가 오는 12일 오후 4시 여학생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한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보고 △성폭력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 계획 △시행세칙 가안 검토 등에 대해 논의된다.

특히 처음으로 반성폭력학칙의 시행세칙 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가안은 여학생실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현 반성폭력학칙은 시행세칙이 부재해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혈 봉사활동 실시 오늘(10일)부터 이틀간

건학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헌혈봉사가 오는 12일부터 이틀 간 중앙도서관과 동국관 앞에서 이뤄진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헌혈 후 헌혈 증서를 참사람 봉사단에 제출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시간 10시간이 인정된다.

여학생을 위한 진로검사

어떤 분야에서 개성을 살릴 것인가?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 본인의 적성을 몰라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기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한번 검사해보십시오.

- 일정**
 - (1) 실시 : 2003년 11월 19일(수) 1시 30분 ~ 4시 30분
 - (2) 결과 분석일 : 11월 26일(수) 2시 30분 ~ 3시 30분
 - (3) 장소 : 학림관(J) 405
 - (4) 진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혁신센터의 직업상담사
 - (5) 신청 : 11월 14일(금), 17일(월) 여학생실(2260-3058, gender@dongguk.edu)
- 직업심리검사**

직업이나 진로의 선택을 목적으로 사람의 능력, 성격, 흥미 및 태도 등과 같은 내적인 특성을 표준화된 도구로 측정,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
- 종류**
 - (1) 선호도 검사(30분) : 어떠한 직업에 흥미와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직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최적직업, 적합훈련직종, 개인의 성격 파악
 - (2) 직업적성검사(120분) : 직업선택을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사해 어떤 직업분야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적합직업군, 희망직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능력 파악

공과대학 전공설명회

▷일시 :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 13:00
▷장소 : 본관 중강당

- ◆ 안내자료 배부 (13:00~13:10)
- ◆ 공과대 확장인사 (13:10~13:20)
- ◆ 전공설명회

	시 간	발표자
기계공학	13:20 ~ 13:40	임중연
전기공학	13:45 ~ 14:05	김 윤
화학공학	14:10 ~ 14:30	박상권
토목·환경공학	14:35 ~ 14:55	조병연
휴식	14:55 ~ 15:05	
건축공학/건축학	15:05 ~ 15:35	이명식:건축공학 / 이재섭:건축학
전자공학	15:40 ~ 16:00	홍유표

2004학년도 전과(전공)변경 공고

- 지원자격**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 원칙상 개설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 제한사항**
 -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다. 야간에서 주간 및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공(학과) 변경
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마. 입학시 전공(학과)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바. 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부과
- 전공(학과)변경 허용인원**
전임 전공(학과) 2002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별계열 20%)
- 시행 일정**
 - 가. 원서접수
 - (1) 접수처 : 전임희망 전공 소속대학 교학과(야간은 야간강좌 교학과)
 - (2) 접수기간
 - ① 재학생인 3학년 진급예정자 : 2003. 11. 17(월) ~ 21(금)
 - ② 2004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1차) : 2003. 12. 8(월) ~ 10(수)
 - (3) 구비서류 : ① 전공(학과)변경원 ②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 예체능계 지원자는 별도의 전형료(₩30,000)를 납부하여야 함.
나. 면접 및 실기고사 : 전공(학과)별 일정에 따라 2003. 12. 15(월) ~ 20(토)
다. 전공(학과)별 합격자 결정 : 2004. 1. 23(금) 이전
라. 전공(학과)변경 합격자 공고 : 2004. 1. 30(금) 이전
 - 6. **전행방법 및 전형요소**
 - 가. 일반계열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100%) + 면접
나. 예능계열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다. 사별계열(체육교육예외)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90%) + 교직원·적성검사(5%) + 면접(5%)
라. 체육교육과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60%) + 실기고사(30%) + 교직원·적성검사(5%) + 면접(5%)
 - 7.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학년도 1차 전공결정 시행

- 신청대상**
가. 2003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 일정**
 - 가. 전공 신청기간
 - 1학년 재학생 : 2003. 11. 24(월) ~ 11. 28(금)
 -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3. 12. 8(월) ~ 12. 10(수)
 -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학정공고
 - 1학년 재학생 및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4. 2. 13(금)까지
* 대학별 공고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4. 2. 26(목)까지
- 대학별 전공신청 요건**

대학	전공신청자격	비고
불교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98년 까지의 입학자는 ②만 요건
경영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③ 기초통계과목 2과목 이수 ④ 기초회계과목 3과목중 2과목 이수	
사회과학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 문과, 이과, 생명자원과학, 공과, 정보산업 대학은 자격 요건 없음.

- 대학별 전공결정 기회(시기)**
 - 가.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 1회(1학년 2학기말)
 - 나.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 2회(1학년 2학기말, 2학년 1학기말)
- 배정기준**
 - 1학년 1·2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
- 복학생의 전공결정**
 - 가. 기본원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부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 나. 배정기준
 - (1) '98~'00학번 복학생 전공결정(※0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희망전공 배정)
(가) 성적이 '98~'00학번 전공결정 당시의 전공별 컷라인을 상회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에 배정.
(나) 복학 당시 이루어진 전공결정에서의 전공별 컷라인을 상회 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에 배정
 - (2) 2000학번 이후 복학생 전공결정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 단, 2차 복학자의 성적이 1차 전공결정 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재학생+1차 복학자)의 컷라인보다 높을 경우에는 선발전원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 동일자 처리기준**
 -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 다. 제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 전공결정 신청방법**
 - 가. 1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학교홈페이지-학생행정-재학서비스-전공신청화면)
 -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
 - (1)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 (2)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소속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 중 1개의 전공을 선택한다.



1. 물적 환경
2. 교육과정 I
3. 교육과정 II
4. 교수임용 및 처우 I
5. 교수임용 및 처우 II
6. 단급회

능력 향상시키는 평가체계를

교육분야 강화 · 계열별 특성 고려해 평가항목 개선 필요

최근 우수한 교원이 타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수처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교의 교원급여수준을 비롯한 교수처우현황과 교원평가기준의 적절성은 어느 수준일까.

▲교원평가=현재 본교는 교육과 연구, 봉사업적평가를 종합한 교원업적평가를 연구·재임용심사에 반영한다.

이중 교육에 대한 평가는 △학생인지도 △수업의 양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 △학생의 견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는 객관적이기 어려우며, 강의평가가 역시 학생의견과 관계없이 단지 평가했다는 것만으로 같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교육의 질과도 관련된 만큼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강의평가내용을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업적평가의 경우 계열별로 차별

화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의 특성상 논문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고 국제저명 학술지의 수도 자연계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승진·재임용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 논문개재 편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상대비율이 연세대 2대 3, 중앙대는 1대 2인 것과 대비된다.

한편, 교원인사평가제도의 개정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인사평가는 교원인사평가위원회의 기획인사처장, 교무처장, 정직원장이 매학기말 △인격 · 품위 △학사운영에 대한 협조성 △근학이념 구현 노력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격 · 품위 등 일부 평가항목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는 어려워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해당교수와 평가위원장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성 · 품위 등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원인사평가는 재임용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필수적이다. 실제로 몇 년전 본교 법학과 교수가 당시 인성평가가 최저종합평점에 미달돼 재임용에 탈락된 바있어 개정 또는 폐지가 교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과정·기준을 교수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교수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급히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수준=본교 교원의 급여수준은 타대학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얼마전 민주당 설문 의원이 전국 120여개 사립대학의 교원 급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교의 급여수준이 서강대, 서울여대 등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전임교사의 초봉이 보통 기업의 과장급 직원보다 적은 실정"이라며 "많은 젊은 교수들이 급여문제로 타대학 또는 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고등교육법에 준거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게 돼 있음에도 본교 교원급여에는 준거력이 반영되지 않아 근무무기간 만큼의 호봉을 인정해 실질적인 급여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원평가의 일부 비합리적인 평가항목과 낮은 수준의 급여는 우수교원 확보의 장애물이 분명하다. 또한 이는 우수교원을 '유지'하기보다 '불합직 바쁜'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한 후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즈음 급여수준을 상위권으로 올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심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양 · 질 모두 아우르는 '개선'으로

연구지원 현황

본교는 각종 연구비, 연구년 제도 등을 통해 교수들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비 지원=교수들에게 △저서·번역 연구비 △학술지 논문게재료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료 △논문게재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논문게재연구비의 경우 그동안 연구를 하기 전 교수들에게 신청 받아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등의 외부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처(차장=여인형·화학) 연구개발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비지원 시기를 논문게재 후로 바꿔 논문 게재 전 외부 연구비를 지원받아도 본교 연구비를 지원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 등재되거나 등재후보로 오른 학술지까지 지원대상 학술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났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편당 연구지원비는 감소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의 경우 약 46%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학진게재 논문 등의 경우 타대학에서 예전부터 인정했던 것을 본교는 이제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다.

또한 문과대의 경우 "그동안 현실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자연계열에 비해 SCI급 논문게재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번 안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학문특성을 맞춘 연구비지원 안 마련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번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해외연수 지원='교·직원해외연수 특별기금'의 이자를 이용, 일부 교수에게 항공료와 1천 200만원을 지원해 6개월 간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기금 해외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최근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등 대상인원이 극히 줄어들면서 문제로 지적됐다. 학교측에서 연구비 지원을 통한 해외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이에 한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해외연수의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과 연결되는 만큼 예산을 따로 책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인원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강의법 연구인력 늘려야

강의지원 현황

학문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만큼이나 '잘 가르치는' 교수도 소중하다. 때문에 대학이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교에서는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연구를 주로 교육연구원(원장=박명희·가정교육)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최신교수법, 매체 활용법 등 강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업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제공해주는 서비스 또한 본교에서는 자기진단표를 함께 제공하는 반면, 이를 대학에서는 전문연구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교에서도 온라인 강의, 프리젠테이션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의 강의를 늘리고 있다. 이에 맞춰 효율적인 강의방법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시점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사설

노동자 자살이 의미하는 것

지난 9일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70년 11월,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을 택했던 전대 일 열사를 기리는 이날이 더 안타깝게 다가왔던 이유는, 지난 한 달 사이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전태일의 뒤를 따라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인가. 단순히 그들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분명 아니다.

출발 전부터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비정규직 보호 등을 내세웠던 참여정부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진약속만 되풀이한 반면,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유감 없이 '칼날'을 휘둘렀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을 두고 내놓은 대책 또한 '다시 한 번 약속한다'는 안이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중 노동탄압책으로 불리는 손배가압류 제도는, 정부가 지금까지 보유했던 것이 결국 일부 거대자본이었음을 보여준다. 임금 몇 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던 파업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몇 백억 씩 빌을 지고 살아가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억울하다고 집회를 하면 정부는 그저 '업정대처'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여기에 일부인론은 한 술 더 떠다. '무모한 파업이 경제를 망들게 한다'는 식의 보도로 노동자들을 몰아붙이는가 하면, 노동 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몰기 바빴다. 하지만 그들이 보도한, 1년 중 165일 놀면서 6천만원을 버는 노동자는 실제 찾기도 힘들다. 결국 정부는 법과 정책으로 자본가는 돈으로, 언론은 펜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삼각 플레이'를 계속해 왔던 셈이다. 노동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버린 것은 이러한 협력의 이미 거대한 구조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분명한 점은 노동자를 자살로 내 몬 이 '거대한 구조'가 비단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만을 육취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거대한 구조 안에 있는 지도 모른다. 그들의 죽음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200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일반 대학원

☎ 2260-3094 ~ 5, 3116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인문, 중앙종교, 시, 미술사, 철, 윤리, 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영행정, 사회, 특산,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사회복지경영,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중앙종교, 시, 미술사, 철, 윤리, 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영행정, 사회, 특산,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사회복지경영, 지리
자연과학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공학, 수학교육, 농, 임, 생활, *초중, 기생, *간호, *생물공학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공학, 수학교육, 농, 임, 생활, *초중, 기생, *간호, *생물공학
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신소재공학, *전자계산, 기계공학, *인공지능,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신소재공학, *전자계산, 기계공학, *인공지능, 정보통신공학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체육
의약계	*한의, *의	*한의, *의
학과간	멀티미디어 (연극영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경영)	-
협동과정	*전사상가대 (경영, 국제통상, 정보통신)	-

■ 국가지원 대형 연구 프로젝트 사업 및 관련 학과

분야	지원기관	사업명(팀) 및 연구연도	성명(연구)학과	특 권
인문사회	교육인적자원부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불교학과	장·단기 해외연구 및 학과별 신발발자를 거쳐 장학금 지급
	한국연구재단	한국어·외국어 100년 연구팀	고려문화학과	
	한국연구재단	조선왕조실록 연구팀	신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한국연구재단	연말목 노정민사 연구팀	국문학과	
	한국연구재단	연말목 해체팀	국문학과	
자연계	과학기술부	양자정보통신 연구센터(SRC)	물리, 반도체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과학기술부	멀티미디어·신기술 연구센터(ERC)	전자공학과	
공학	신입 지원	산업용 공정제어/정보 표준화팀	기계공학과	
	신입 지원	생체조직공학기술 연구팀	화학공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중소기업청	신원형 공중기체개발사업	공과대학, 정보시스템대학	
의약계	과학기술부	국가차질연구실(NRL)	의약학과	

* 기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정부지원, 산업지원 등의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매월 연구비 지급.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 14(금), 교과부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0:00부터, 본대학원

영상정보통신대학원(준주)

☎ 2260-376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영화영상제작학과-영화기획, 영화연출, 시나리오, 촬영, 프로덕션디자인, 시운트디자인, 특수효과연출 / 멀티미디어학과-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음악, 멀티미디어디자인, 게임제작 / 네트워크학과-네트워크연리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5(수) ~ 11.14(금), 교과부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19(수) ~ 11.21(금) 10:00, 본대학원
■ OPEN LAB 실시! 11월 7일 10 ~ 17시 교수상담(인부) 가능 마이아이트센터는 항상 방문가능

불교대학원(아간)

☎ 2260-3097 ~ 8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 정계문화학과-장제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17(월),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19(수) 13:00, 본대학원 (지도자과정 전형일시: 2003. 11. 20(목), 14:00)

행정대학원(아간) 신인성·편인성

☎ 2260-310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지방자치 / 인보행정학과-외교공관, 방위산업, 군사전략, 안보정책 / 공인행정학과-경찰행정, 소방행정, 교통행정, 사법행정, 민간경제 / 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 / 북한학과-북한체제, 북한사회, 통일정책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0(월) ~ 11. 20(목) 10:00 ~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본대학원

경영대학원(아간)

☎ 2260-3106 ~ 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이비트·한반선전문가과정 특별과정

■ 모집학과: 경영학과-조직·인사관리, 마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전략 / 무역학과-인터넷무역인증 / 회계학과-회계학, 세무회계전문 / 경영정보학과-경영정보, 국방관리(총상대) 전공 / 부동산학과-부동산전공 / 문화관광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 이벤트경영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7(월) ~ 11. 27(목), 본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4:00, 동국대 학술관

교육대학원(아간)

☎ 2260-3110 ~ 11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교육경영 최고위 관리자과정

■ 모집학과: *교육정책, 상담심리, *유아교육 / 교육학과-교육경영, 상담심리, *유아교육 / 교과교육학과-철학, 윤리, 종교, *영어, *국어, *영어, 초등영어, 중국어, 일어, 한문, *수학, 물리, 생물, 가정, 컴퓨터, 미술, 체육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7(월) ~ 11. 21(금) 10:00 ~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4:00, 본대학원 (경주캠퍼스 지원자는 사회과학대학원(054-770-2199)에서 전화)

언문정보대학원(아간) 신인성·편인성

☎ 2260-372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신문방송, 정보관리, 광고홍보, 출판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6(수) ~ 11. 19(수)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언문정보대학원 원강실

신입기술경영대학원(아간) 신인성·편인성

☎ 2260-360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전공: 건축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기계공학(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전자공학, 다자언어공학, 산업공학(경영공학), 식품공학, 화학공학(생명·신소재), 생명·화학산업(응용화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4(금) ~ 11. 27(목), 산업기술경영대학원 교과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4:00,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원강실

문화예술대학원(아간) 신인성·편인성

☎ 2260-3606 ~ 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지도자과정

국제정보대학원(아간)

☎ 2260-3731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모집학과: 정보보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IT·Business학과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 14(금),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1(금) 18:00, 본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준주·아간)

☎ 054-770-2394 ~ 5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불교, 문화예술, 정태문화, 불교상담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불교학, 선학 불교예술학과-국악, 불교미술 인강학과-장제문화, 불교상담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0(월) ~ 11. 20(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본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준주·아간)

☎ 054-770-2093 ~ 4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행정학과-정책개발, 지방자치, 경영학과-경영, 전자상거래, 세무관리, 무역사무 국제관계학과-국제관계 / 법학과-법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24(월) ~ 12. 5(금),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2. 6(토) 14:00, 본대학원(전통관1층)



자취·하숙·고시원생 권리 살펴보기

참고 사셨군요 이제 권리를 찾아요

본교생 중 30%는 지방 출신 학생으로 대부분 자취, 하숙,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낯선 각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방출신의 본교 재학생 기성인들, '동국이'의 상황을 설정해, 자취·하숙·고시원생들이 평소에 놓치고 있는 권리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위에서 하숙하는 친구를 말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하숙집의 6층은 건물을 다 지은 뒤 뒤늦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습기가 잘 찬다고 한다.

다음날 동국이는 좀더 저렴하고 깨끗한 방을 찾기 위해 친구가 살고 있는 고시원을 방문했다. 깨끗하기는 했지만 화재 시설 등 비상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았다. 게다가 방에 들어가 벽을 두드려 보니 가벼운 나무 소리가 났다. 만약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렴한 가격의 유혹을 뿌리치진 쉽지 않았다.

간과하기 쉬운 안전 문제

'안전문제'는 자취생, 하숙생, 고시원생들이 간과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 경우 동국이는 먼저 자신이 살던 하숙집 6층의 안전여부를 따져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6층 이상의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몇몇 건물 주인들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처음에는 5층으로 건축했다가 나중에 1층을 더 쌓은 뒤 원래 있었던 1층을 지하 1층으로 명칭만 바꾸어 제일 윗층을 똑같이 5층으로 만들기도 한다. 일종의 편법이다.

따라서 동국이는 추가공사로 지어진 자신의 방이 안전, 방음, 환기 등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고시원은 '안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내부 자체도 잘 타는 나무관널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소화시설이나 비상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 요구는 개인적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므로, 다른 세입자들과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귀찮아도 '하나씩'

앞서 살펴본 문제 말고도 자취방의 경우 전·월세금을 갑자기 높게 인상한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겸 교수(법학)는 "집주인은 계약이 끝났을 때, 지난 계약금 5~10% 정도의 금액을 인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인상은 세입자와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취나 하숙, 고시원 생활을 하는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침해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은 권리를 찾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을지 몰라도, 우리의 문제제기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대다수 지방출신 학생들의 생활환경은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상황 1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늦은 시간에 귀가 하게 된 동국이. 어제 과음을 한 탓에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잠꾸 놓았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누워있는 동국이를 보자 당황하면서 다시 나갔다. 생각해 보니, '몇몇 집주인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전자제품들을 확인하러 종종 빈방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듯 하다. 꼼꼼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신도 주인을 못 본 척 하기로 했다.

이제 일어나서 샤워를 할 생각으로 물을 든 동국이는 냉수처럼 차가운 물에 깜짝 놀랐다. 어찌 된 영문인지 물라 나중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온수는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사생활 존중은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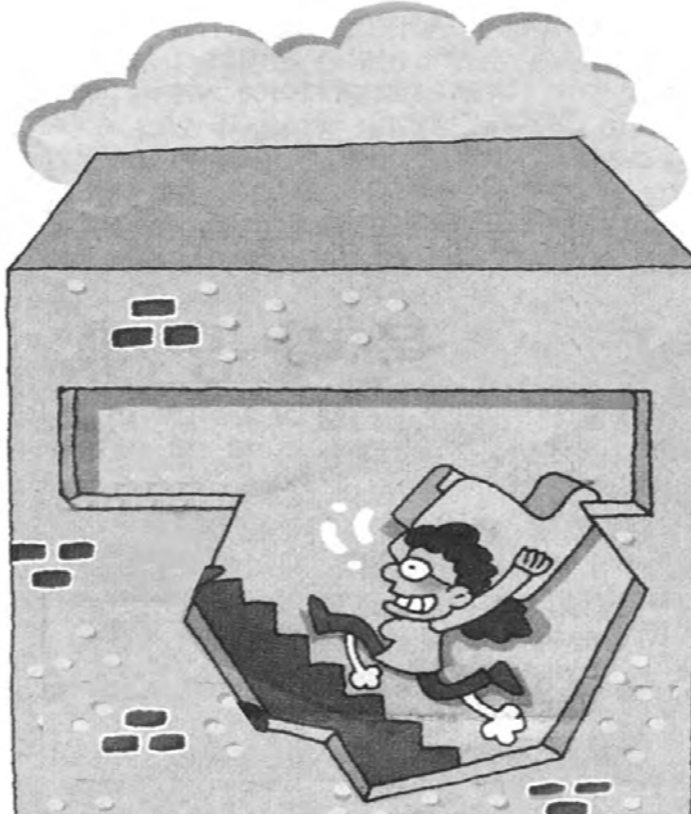
이 경우 동국이는 어떠한 권리를 놓치고 있는 것일까. 하숙이나 고시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사생활 침해'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없는 틈에 빈방을 드나드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입자와 미리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상희(이과대1) 양은 "기본은 나쁘지만 집주인에게 따로 말하기도 어색해서 참는다"고 말했다.

운수·난방 시간제, 식사문제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즉 동국이는 계약시 이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협의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했어야 했다. 다만 하숙은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두로라도 합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만약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상식에 바탕한 기준에 의해 암묵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주인이 빈방에 들어오는 행위나, 운수·난방을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므로 동국이는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협의할 권리가 있다.

상황 2 오늘도 자신의 방이 있는 6층까지 힘겹게 오르고 있는 동국이. 숨이 차오르는 것을 기다들면서 방안에 들어가니 습기가 차 있는지 어디선가 메케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



기숙사 건립 논의 지지부진

본교 지방출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기숙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현재 서울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없기 때문.

이에 홍기삼 총장은 지난해 총장선거를 앞두고 공약 사항으로 기숙사 건립을 약속했고 지난 8월 건학 1백주년 행사에서 오는 2006년도까지 1천억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서울캠퍼스 기숙사 건립에 사용할 것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기숙사의 부지 선정이나 건립규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와 학생복지위원회는 본교 지방출신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남산 택리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산 택리지 사업'은 학교 주변의 하숙집, 자취집 등의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오는 겨울부터 2004학년도 개강전에 배포될 예정이다.

'남산 택리지 사업'은 현재 1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자취방(원룸)은 보통 보증금 2000만원에 월 40만원 정도이고, 하숙방은 독방 35만원에서 40만원, 2인 1실은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고시원은 20만원에서 28만원선으로 나타났다.

동약론

속 빈 '대하'

"학교가 사물함을 구매했으니 학교측이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물함 관리는 학생들의 자치권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구매된 사물함의 관리주체를 두고 학교측과 학생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측은 학생회가 관리했을 때 사물함이 많이 손상돼 왔기 때문에, 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사물함을 구매한지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물함 관리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이제까지 단 한차례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장학기금 조성 논의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4월 학교측과 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분의 1%를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합의했으나 장학기금에 대한 논의를 서면 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현재까지 장학기금의 명칭과 지급규정·시기 등에 대해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마무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형식적 의사소통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동반자'라는 인식의 부족, 즉 '신뢰의 부족' 문제가 있다.

올해의 경우 신입총장이 취임하면서 논의자리가 여는 때보다 많았지만 일부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자세를 보이기 일쑤였고 학생회 역시 학교를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했다. 때문에 논의자리가 증가했음에도 입장만 재확인할 뿐 실질적인 성과는 많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의욕적으로 논의자리를 늘려갔던 올해 초와 달리 요즘은 서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 버린 실정이다.

따라서 이전 단지 논의자리를 늘리기보다 서로 '동반자'임을 인정하는 자세부터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논의자리를 한 번쯤 포장마차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이주의 시사키워드

대학입시 언제부터(?)

지난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진행됐다. 대학입시의 문턱을 넘어본 이라면 수험생 시절의 묘한 향수에 한번쯤 젖을 법한 시기다. 그렇다면 '입시를 앞둔 고3의 추억'은 어느 세 대까지 공유할 수 있는 걸까.

대학입시가 처음 생긴 때는 1945년. 이후 68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단독시험 혹은 본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을 대학별로 치렀다. 이와 별도로 '국가고사'라는 대학 공통시험도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는 입학 탈락자들의 항의로 인해 폐지되기도 했다. 전시기간 대학생들에게는 징집보류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입시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69년부터는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됐다. 본고사는 81년 일명 7.30 교육개혁조치라 불리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방안'을 통해 폐지되고, 대학입학예비고사가 82년부터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이 바뀐다. 흔히 말하는 '학력고사'가 이것이다. 수능은 94년부터 도입됐으며 내년이면 시행 10년 째가 된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건학 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燈)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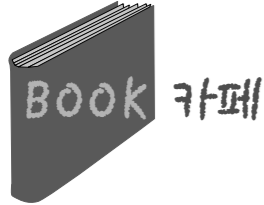
동국사랑, 손모아 마음모아...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동국의 도약을 응원하는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헌동이 2006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100년 동국과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동국사랑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참여안내

- 참여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정성을 소중히 접수하여 한등씩 헌정함
- 접수기간
2003년 8월 ~ 2006년 5월 8일
-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수증물품도 가능
- 무통장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 313-03-002943
외환은행 : 065-13-19061-0
신한은행 : 216-05-005036
국민은행 : 068-01-0373-353
제일은행 : 107-10-119210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우체국 : 012328-01-001567
- 헌당하신 분의 명패는 본교 정각원에 보존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동국대학교 대각전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드리며, 동국VIP카드를 발급하여 본대학교 부속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비 할인혜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실재라고 믿는 운명적 가상공간 매트릭스

서평



철학으로
매트릭스
읽기

이정우의 저
이름 출판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죄수들은 오직 동굴의 안쪽 벽만을 볼 수 있다. 햇빛이 비추는 동굴 밖에서는 여러 사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동굴 안의 사람들은 오직 사물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그것이 참된 실재인 듯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 즉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동굴의 비유’다. 이러한 참된 세계의 실재, 이데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은, 최근 시리즈의 완결편이 전세계에서 동시개봉돼 4년 여 간 뽑어낸 문화적 스펙트럼에 마침표를 찍은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다.

‘매트릭스’ 안에서 통제되는 인간들은 오직 매트릭스 안에서만 보고, 듣고, 느낀다. 사람들은 매트릭스를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실재의 공간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가상공간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처럼 진실과 거짓, 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등 철학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매트릭스’는, 때문에 공상과학 블록버스터 영화의 위치를 넘어서서 여러 해석과 답변을 낳는 철학적 ‘텍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로 ‘매트릭스’ 1편이 개봉된 후 ‘매트릭스와 철학’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 등 이를 분석하는 여러 권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철학자들이 △현상학 △논리학 △인식론 △미학 △정신분석학 △동양철학 등 다양한 형식과 글쓰기를 통해 ‘매트릭스’ 전체를 총괄,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분석서를 냈다. ‘철학으로 매트릭스 읽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책은 우리의 문제의식, 우리 식의 사고와

더 가깝다.

특히, 매트릭스와 ‘도(道)’를 연결시킨 한국철학 사상연구회 김시천 연구원의 글은 흥미롭다. 그는 ‘매트릭스’에 신화적, 종교적 은유의 장치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테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을 지닌 앤더슨이 구세주를 뜻하는 ‘그(the one)’에서 one의 철자를 바꾼 이름인 네오로 불리는 것, 세례 요한이자 꿈의 신인 모피어스, 네오와 사람의 운명을 타고 난 트리니티가 마리아의

우리의 문제의식, 우리 식의 사고로 ‘매트릭스’ 전체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철학적 ‘텍스트’

현신이자 ‘성삼위일체’를 뜻하는 것 등이 그렇다. 때문에 ‘매트릭스’는 현대적으로 창조된 하나의 신화인 셈이다.

김시천 연구원은 이러한 ‘매트릭스’를 전통 동아시아 신화와 사유 속에 등장하는 요소들과 접속시킨다. 가령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장주는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깨어나 보니 장주 자신이었다. 도대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일까,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일까’라는 장자의 제물론에 묘사되는 장주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을 실제

로 여기며 살아온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네오의 모습과 닮아 있다. 또한 ‘당신이 말하는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동학자의 질문에 ‘도는 없는 곳이 없다’고 대답한 장자의 대화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매트릭스’라는 모피어스의 대사와 겹쳐진다.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그렇게 얻고자 했던 도는 거대한 매트릭스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매트릭스’는 여러 철학적인 담론들과 맞닿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 결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우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인가’라는 운명론과 자유의지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과연 실재인가’라는 존재론적·인식론적 문제 등에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도 수많은 허구와 의문이 존재하듯, 영화 ‘매트릭스’에도 매트릭스의 허구성이 나타난다. 과연 영화에서 설명되고 있는 매트릭스 세계는 가능한가. 설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굳이 매트릭스를 전복시켜야 할 당위성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박영욱(한국디지털대 철학) 교수는 이에 대해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듯, ‘매트릭스’도 설명해야 할 사실들을 당연스레 전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 교수는 “그럼에도 가상현실의 세계가 얼마만큼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매트릭스’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영화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대중문화의 한 장르를 통해서도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점, 영화 ‘매트릭스’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은 물론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김승호
국어교육과 교수

사상가 이야기

시대를 앞서 간 실학자이자 소설가

박지원
(1737-1805)

연암 박지원(1737-1805)은 18세기의 대표적인 북학론자이다. 그의 호는 연암, 연상 열 열상화사이고 본관은 전남 나주의 반남현으로 대대로 명성을 올린 사대부가의 후손이다. 조부는 경기도 관찰사 예조참판을 지내는 등 고관을 두루 거쳤으나 부친이 별다른 벼슬을 하지 않은데다 청빈함을 기풍으로 삼았던 탓에 높은 명성과 달리 그의 일생은 궁핍함에서 헤어나지 못한 적이 별로 없다.

사대부 후예가 과거 준비에 몰두하는 것과 달리 연암은 어릴 때부터 문예적 글쓰기에 전심한 결과, 20세 무렵에 이미 필명이 높았고 30대에 들어서는 당대 지식인들과 주로 어울렸다.

특히 흥대옹과의 만남은 그가 실학사상가로서 눈을 뜨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등과의 친교는 이용후생을 핵심으로 한 북학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용후생학은 18세기 후반 상업의 진흥, 상품유통, 농업생산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편리함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기저에 두고 주자학이 낳은 폐해, 즉 관념적 독선과 교조주의적 억압에서 비롯된 비능률적, 비실용적인 문제점을 타파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크게 보아 연암의 사상은 우주와 자연 등 세계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고 그것은 44세 때 삼종형 박명원을 수행하여 연행사의 일원으로 중국 여행을 하고 난 이후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랑캐국이라고 비하하는 대신 청(淸)의 화려한 문물과 산업의 발전에 주목해 조선도 하루빨리 전근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과거부터 선창하던 ‘복벌’이 아닌 ‘복학’이야말로 그의 화두였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북학이란 중국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 및 문화의 독자성을 창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한편, 다른 실학자들과 구별되는 연암의 면모는 사상 철학적 글쓰기에 그치지 않고 생각과 주장을 12편의 소설 및 열하일기를 통해 수준 높게 형상화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실의 부조리 및 양반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한편 연민의 시선을 통해 하층민들의 덕성에 주목하고 있는 그의 소설은 철학담론 이상의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입신과 양명에는 아랑곳없이 연암은 내내 18세기 조선현실과 민민들의 삶에 눈길을 고고하고 있었다. 그는 감감한 창공에서 제 홀로 광채를 발하는 별과 같은 존재였다.

교수동정

△박상진(생명화학공학)=해외연구조사 및 전공서적 출판 협의 위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방문.
△안종석(컴퓨터공학)=제30회 추계과학회 가연학술상 수상.
△유지나(영화영상학)=2003 SFKAMAF FORUMS and PANEL DISCUSSIONS FORUM: 'Globalization, Cultural policy and National culture' 참가, 'The Screen Quota System in Korea film industry' 주제 발표 위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방문.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국제통상학과 학술심포지엄

지리적 이점 살려 물류중심기지로 나아가야

‘실물 자재 및 상품, 서비스 그리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서 수반되는 일련의 활동.’ 이는 ‘국제물류’를 지칭하는 말로, 국내자원 시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제통상학과가 ‘한국의 물류산업, 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물류산업의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문제점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을 살펴보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물류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본 이상욱(국제통상3) 군은 △미국=물류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화물운송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유도 △일본=정부 차원의 물류개선훈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기훈(국제통상1) 군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고 군은 “우리나라는 열악한 투자환경을 가졌고 실제로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물운송의 도로의존도 심화 등 취약한 화물 운송 체계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등 취약한 물류 인프라 경쟁력 △혁신 대책 미흡 등 전근대적인 운송업계 구조 등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정자용(국제통상3) 군은 크게 4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고부가가치 물류를 지향해 물류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물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업계구조·투자환경 등을 개선해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업계구조의 혁신, 도로편중 문제의 완화 등 화물 운송체계의 개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기반인 제3자 물류를 표방하는 전문 물류업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종훈(국제통상4) 군은 “우리나라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다”며 “이를 살려 동



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촌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세계 기업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물류 개념과 시스템 등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물류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말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21세기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이창배전집

전12권/ 209,000원



저자가 지난 반세기동안 발표한 논문, 저서, 번역서 중에서 후세에 남길만한 것을 골라, 체제와 내용을 현대적 안목으로 수정 보완 재편집한 것으로, 어느것 하나도 그대로 복간한 것 없는 참신한 개정판이다.

양주동전집

전12권/ 320,000원



무애 양주동 선생의 저서, 논문, 평론, 시문, 역서, 반안소설, 수필, 콩트, 강연원고 등을 총망라하여 수록한 것으로서 학술적 가치는 물론 생활의 지혜도 담겨져 있다.

연행록전집

전100권/ 4,000,000원



연행록은 조선시대 사신들이 연경(북경)을 내왕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이들 기록은 한·중 외교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학술·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 유산이다.

한국불교전서

전13권/ 2480,000원



삼국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불교계의 고승석덕, 명현학자들이 남긴 옛 문헌들을 낱알이 발굴 수집하여 전 13책으로 출간한 한국불교관계 학술자료의 대총서이다.

학생회 선거는 언제나 목마르다

학생회측 노력불구 학생 무관심 '여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회 선거 후보로 나온....." 이른 아침부터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들은 목청을 높이며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루 중 그러한 그들과의 만남은 교문에서 뿐만 아니라 강의실, 도서관에서도 계속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약의 '정치축제' 기간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 3일부터 학생회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단선으로 치러지게 될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들은 '자주의 새날' 일만 이천의 어깨동무'를 모토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선거 운동단 내 '문예기동대'를 구성해 노래와 율동으로 후보자를 알리고 있으며, 후보자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미니콘서트'를 열어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에는 좀 더 큰 규모로 학교 전체를 돌며 전 학생회 후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특히 각 단과대 후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평화의 리본 달기'는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후보들이 직접 노란 띠를 가지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학생회에 바라는 점을 쓰게 해 학생들과 보다 많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아진 띠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는 15일 팔정도 주변 나무에 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 위원회 오선임(국교4) 정책국장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후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표정은 남의 일 보듯 무관심하기만 하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참여할텐데요"라며 무심히 지나쳐 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또 하나의 축제로 시끌벅적해야 할 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타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몇몇 학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시도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해부터 학교 정문에 전체 단과대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홍보 도우미를 마련해 지나가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4년만에 투표연장기간 없이 후보가 당선됐다.

또한 숙명여대는 4일부터 3일간 실시된 선거에서 전국대학 중 처음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3년간 지속돼 오던 재투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

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윤유선 위원장은 "전자투표는 일반 투표와 달리 개인 아이디와 학번을 컴퓨터에 직접 입력해 중복투표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으며 학내·외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회 후보자들의 등록 부족 역시 선거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총대의원회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후보 등록기간이 연기됐으며 졸업준비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있었으나 정해진 시간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등록하지 못해 후보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또한 단과대의 경우 총 4개 단과대만이 후보로 출마해 후보 등록기간이 5일간 연기 됐으며 각 단과대의 출마한 후보들 역시 최근 저조한 투표율을 해결할만한 선거 운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 선거가 또 하나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학생회 측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무관심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다. 학생회 주체들의 노력이 있어도 학생들의 '등돌리기'가 계속된다면 이는 '고요속의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제36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학교 재정구조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황주상 기자

2003 학생회 선거 후보 등록결과 36대 총학생회 선거에 구자룡(아간영문4)·이승효(국교4) 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지난 7일 이들을 만나 입후보한 이유와 주요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이유는.

= 개인주의 팽배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대학사회 전반에 걸쳐 학생회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교 또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전체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 구성돼야 할 학생회가 최근 일부 학생만의 학생회로 자리잡게 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문제해결집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과대 학생회장 등 그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며 고민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 안목으로 큰 틀에서 해결해보기 위해 입후보했다.

- 아직까지 선거 분위기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

= 이번 선거에는 4개 단과대만이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표율에도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그동안 매일 후문과 혜화문, 상록원 등에서 선거유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율동패를 동원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도 중도 앞에 단과대별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재단개혁을 통한 학교 재정구조 정상화와 등록금 동결' 공약에 대한 계획은.

= 향후 몇 년 동안 제3캠퍼스 이전, 불교병원 개원 등으로 인해 학교측이 대

폭적인 등록금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본교의 가장 큰 문제는 재단 전입금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예산의 등록금 의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재단 전입금을 늘리기 위해 재단 측을 상대로 회계 투명화를 요구하는 등 재단을 상대로 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희대, 단국대 등의 타대학들이 감사에 대한 책자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며 본교 역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책자를 공개할 것을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등록금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겠다.

- 35대 총학생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 절대평가제 도입, 등록금 재조정, 동국사랑 홈페이지(www.dglove.net) 개설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등학생 구성, 총학생회장과 매주 수요일 만나기 등의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학생회 사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로 뛰는 활동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학생들의 학생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 등록금 문제 등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하는 사안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대부분 저조한 실정이다. 당선된다면 학생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과 학생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대의원을 주축으로 한 학생회 활동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하루에 학생 5명 만나기 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본교가 불교 종립학교라는 것에 착안,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문화유적답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단과대 공약 들여다보기

문과대	최이평(사2)	경영대	김정수(국제통상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활성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올해 문과대 학생회는 비대위로 구성되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타 단과대에 비해 부족했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과 M.T나 공지사항 등을 직접 전달하는 이메일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실을 전면 개방해 채우도구 대여, 컴퓨터 이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 대학 내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학과로 단절돼 소통이 부족한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소모임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문과대 내 소모임들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학기초에 활동 계획서를 받아 지원비를 차등 분배하는 소모임 예산 심의제를 도입할 생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OFF line 학생회, 제 모습을 찾겠다'는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은. = 시대가 변한 만큼 학생회 또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사범대 학생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과 학생회장이 참가하는 단과대 운영위원회를 과대표까지 참가하는 연석회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 사범대 환경개선의 계획은. = 매점을 비롯한 편의시설 확충, 사범대 독서실 방음창 설치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매점의 경우 그동안 학교 측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매점을 만들자고 요구했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타대학 사례를 조사하고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측에 재요구할 계획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벗 학생회' 구성의 취지와 활동계획은. = 학생회 자금 운영 투명화를 위해 월별예산을 공개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식지를 제작해 동국관 곳곳에 게시할 것이며 공약이행체크리스트 등을 공개해 항상 공약에 대해 생각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겠다. - 문화광장 만들기의 구체적 방안은. = 동국관은 4개 단과대 학생들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M동 5층과 나체빌 밖에 휴식 공간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L동 주차장을 없애고 그 공간을 학생들의 휴식·여가 공간으로 만들겠다. 부족해질 주차공간은 사육사 미비한 중앙도서관 지하 주차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체빌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 최근 학생회는 커뮤니티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외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들이 강의실로 학생들을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한 설문조사, 건의함 설치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 야간 간좌 주차비 문제는 일단락 됐는데 굳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 주차비 문제는 3년 이상 지속된 문제이고 현재 학생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측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에 학교측이 합인권의 일종인 야간 주차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해 이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일단락 지어진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일 뿐 야간간좌 학생들의 의견은 아니다. 따라서 주차비가 교직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사범대	이종관(역교3) · 김용환(국교3)	아간강좌	김윤권(정보통신3) · 채정석(회계3)

동대신문 기획광고

나는 학생회 타고 환경이 좋아진 수업으로 간다!

부당한 등록금 인상 저지, 학생 복지 향상 ...
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생회에 등돌린다면 학생회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오는 18일 부터 3일 간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동대신문사

본교생 66.3% 한번이상 투표 해봤다 알지 못해 투표 못한 경우 29.7% ... 홍보 활발히 해야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 학생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학생회의 위기'라는 말이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됐다.

특히 전국학생회협의회의 경우 "현재의 학생회가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의 대의 체제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 '발전적 해소'했으며 "이제는 학생회 체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가장 잘 들어나는 것들 중 하나로 학생회 선거 때 학생들의 분위기가 투표율을 들 수 있다.

본교의 경우 90년대 중·후반부터 저조한 투표율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투표율 48.87%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해 무산되기 까지 했다.

이에 지난주 본교 학생의 약 2.3%에 해당하는 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투표 참여 경험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 알아봤다.

▶투표 하는 이유

본사 설문조사 결과 본교 재학생 중 그동안 한번이라도 투표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6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를 한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55.8%의 학생들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주위의 권유 때문'에 26.6%로 2위를, '학생회가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투표할 권이나 학생회의 중요성에 따라 투표를 한 학생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99%가량이 이번 선거에도 투표할 것으로 밝혀 어느 정도 확정된 투표 참가 인원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위의 권유로 투표를 한 학생들의 경우 응답자 중 36% 가량이 이번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 '특별한 생각 없이 투표를 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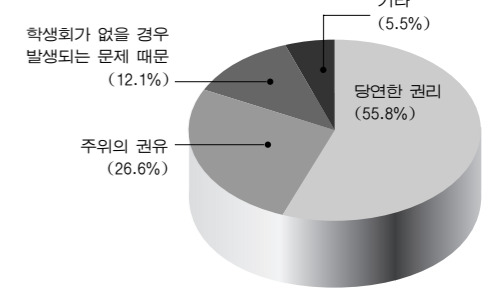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로 '투표를 하는 지 몰랐다'는 응답이 29.7%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는 응답이 각각 28.7%, 18.8%로 2, 3위에 올랐다. 특히 '투표를 하는 지 몰랐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임후보자들의 선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게다가 위의 응답을 한 학생들 중 63% 가량은 이번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라고 밝혀 '투표 시행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투표에 참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적극적 홍보를 할 경우 투표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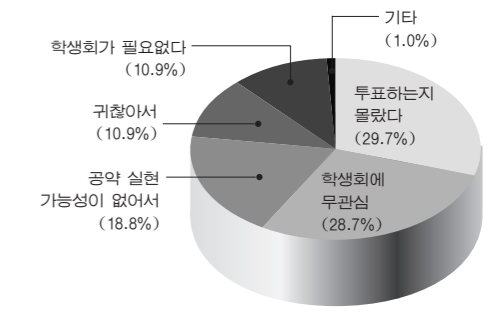
한편, '이번 선거 투표에 참가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0.7%가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투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 총학생회장들이 말하는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회 의식변화 · 신뢰회복 등 필요”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학생회선거가 올해 역시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회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회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정우식(철 92졸) 91년 총학생회장, 김호중(불교 00졸) 99년 총학생회장, 유영빈(경영4) 현 총학생회장과 지난 7일 본사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진행해 학생회위의 원인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편집자

인 비판이었다.

김호중(이하 김) = 시기적으로는 몇 년 차이 나지 않지만 90년대 중·후반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예전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97년부터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었으며, 내가 출마한 99년 선거 때도 간신히 선거가 성사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유영빈(이하 유) =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 총학생회선거가 무산됐으며 올해의 경우는 4개 단과대만 후보자 등록이 되는 상황이 됐다.

학생들의 참여

정우식(이하 정) =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의 경우 학생회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다. 예를 들어 집회 등에 참가할 경우 4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당시에 학생회 혹은 학생운동의 전성기라고 본다.

물론 그때도 학생들이 학생회에 많은 비판을 했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애정 어린 비판 또는 생산적

위기가 발생한 이유

정 = 흔히 학생회의 위기를 거론할 때 시대가 변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학생회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내가 총학생회장으로 있었던 91년은 변화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비롯한 학생회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회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어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의 생각은 80년대, 90년대 초반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유 = 학교측이 국고보조금 등의 이유로 학부제 등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정체성을 찾지 못했고 이같이 급격한 변화를 학생회 역시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김 = 90년대 중·후반 연이은 총학생회장들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중앙간부 진출도 본교 학생회위의 한 원인이자 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들이 한총련 중앙간부로 진출하면서 학생회와 학생운동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생회를 학생운동조직체로 인식하게 됐다.

또한 중앙간부 진출이 본교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된 것이었지만 당시 학생운동 진영 내의 정세에 따라 결정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2000년 새터사고 이면계약 등으로 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학생회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유 =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올해 집행부 공개인선을 시행했다. 비록 참여는 저조했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김 = 집행부 공개모집도 좋은 방안이지만 이전에

실행돼야 할 것이 예산에 대한 공개라고 본다. 학생들은 막연하게 학생회 예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공개와 집행부 공개인선의 두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의 일정부문을 학생들이 기획한 사업으로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99년 당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 만큼 현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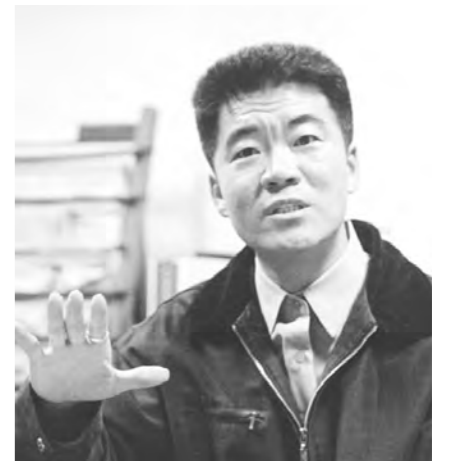
또한 학생들에게 학생회의 성과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록원식당, 신축 중앙도서관 건립 등이 학생회가 학교 측과의 투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선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회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적응이다. 빠르게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학생회 역시 이에 맞춰 적절한 방식의 변화가 꼭 필요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학생회의 활동방식이 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측과 적대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 그렇다. 교육기관의 발전에는 구성원의 화합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화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와 학생회 모두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발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학교측도 학생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91년 총학생회장 정우식(철 93졸)



99년 총학생회장 김호중(불교 00졸)



현 총학생회장 유영빈(경영4)



김진성 기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100주년
대입 수험생을 위한
"음악 페스티벌"

출연진 : 김중석(사회자), 신화, S, 빈, 나비요과(신조출연)

주최 : 동국대학교
연계 : 2003년 11월 18일(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정충체육관(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5번출구)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02-2260-3120, 3122)
학생현실실 홈페이지 | 임시0&A

1부 : 교양강좌(동국대학교 총장), 2004학년도 임시설명(홍목택 김용근 실장)
2부 : 음악페스티벌

* 행사시작 20분전까지 선착순 4000명 입장(이후 입장 불가)
* 2004학년도 대입 수능수험표 또는 고3학생증 지참시에 한함
* 기념품 배부

건학100주년 D-900일 기념
자비실천을 위한 헌혈봉사

동국 백년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학 100주년 D-900일을 맞이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랑의 헌혈봉사에 전 동국인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일시
2003. 11. 12(수) ~ 13(목) 09:30~17:00 (이틀간)

■ 행사장소
가. 서울캠퍼스 : 대학본관 앞, 동국관 앞
나. 경주캠퍼스 : 코끼리상 앞

■ 기타
가. 헌혈 증서를 참사랑봉사단에 제출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시간 10시간 인정
나.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기념품 증정
다. 50명 단위로 특별기념품 제공

■ 문의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3122)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소나기

연이은 노동자 자살 이렇게 생각한다



△분신자살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이 과연 더 향상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차라리 살아서 평생 노동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다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중 한명이 무심하게 스러져간 단신에 답답합니다.
 △역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생존권보다는 존엄성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크레인에 목을 맨 노동자의 봉급 105만원, 21년 간 피땀 흘려 일한 대가 세금 떼고 하면 85만원. 점점 사용자만 편해지는 악랄한 세상이 되고 있다. 우리 대다수가 노동자가 될텐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를 옥죄게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도 대부분 사용자인걸 원하지 않을까.
 △살아서 투쟁하세요! 더 이상의 전태일은 슬픔입니다. △자살이 해결책은 아니다.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거다.
 △꼭 누가 죽어 나가야 조금의 관심을 보이는 나라.
 △30년전 전태일 열사의 유서 내용과 지금의 노동자 열사의 유서 내용이 같은 나라.
 △한 생명이 중요한가, 집단이익이 중요한가.
 △재산가담류에 대한 새로운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가가 자살하면 하루종일 뉴스속보로 뜨는 나라.
 노동자가 자살하면 단신도 나올까 말까 하는 나라.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 정도로 돈이란 것이 중요한가.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굶어 죽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느 나라에 비해 복지제도로도 부실한데 실업수당 그거 받아야 하나요.
 △한사람 죽어도 해결이 안되니까 벌써 몇 명째 죽어 나가는 것이야.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목숨까지 버려가며 할 행동은 아니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탁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또 다시 문제는 '검은 돈(dirty money)'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알려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치권이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검은 돈을 받아 썼음이 밝혀진 것이다.
 정치에 흘러든 검은 돈이 선거를 타락시키고 정치를 부패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에 직접 끌어 모으고 관리했다. 민주화 이후 세 차례의 민간정권이 겪은 정치적 위기는 모두 정치부패와 관련되어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아들이 검은 돈에 휘말려 마침내 여러 업적과 개혁성과에도 불구하고 무능정권, 부패정권의 혐의를 받았다. 참여 정부도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혐의로 직위를 걸고 재신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한나라 당도 최병렬 대표와 정계를 떠난 이회창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정치자금 실명화해야

정치자금을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쓰는 일이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정치를 썩게 만드는 검은 돈이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논단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검은 돈, 이젠 씻어내자

국민의 뜻을 왜곡시켰고, 나아가 정치를 썩게 만들었다. 정치권은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다 썼고, 그 대가로 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 같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같은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막고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정치자금을 실명화시켜야 한다. 후원금과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 신고를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 후원자는 공개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쓸 때는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정치자금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기명 정액 영수증제는 실명제 위반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청탁성 뇌물이 아니라도 비공식적 돈을 받았을 때 엄격히 처벌해야 음성적 돈 거래가 줄어든다.
 정치자금 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범죄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또 검은 돈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표를 쓰지 않고 현찰을 쓴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찰

금융거래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해야 못찾돈 거래를 못하게 된다.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되는 검은 돈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이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비자금은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기업주가 빼돌린 것이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기업주들이 불법 비자금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지속적 '감시'는 기본이다

앞으로의 깨끗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 이전에 지난 날의 깨끗하지 못한 정치를 청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정치권은 지난 대선 때 받아 쓴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부터 스스로 밝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치자금 실명제만으로 정치자금의 완벽한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들이 돈을 뿌릴 것을 기대한다면, 후보들은 돈 선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개혁 논의 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오늘의 길

본교 농구부

전국체전 은메달의 주역들

“열악한 환경 딛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농구부 전국체전 은메달', 약 보름간 본교에 걸려있던 플래카드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제84회 전국체전에서 본교 농구부는 우승은 비록 상무에게 놓쳤지만 참가한 11개 대학 중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성과의 주인공은 바로 본교 농구부 김현중(체교3·가드·주장), 이승현(체교3·센터), 추철민(체교3·가드), 박병재(체교2·포워드), 박세원(체교1·가드), 유병재(체교1·포워드)선수들이다.
 “꾸준한 체력강화 훈련을 통해 지구력과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김현중 주장은 본교 농구부가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선수들의 기량 강화를 꼽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스피드와 탄력·개인기가 뛰어난 김현중 선수를 비롯해 지난 6월 대학농구연맹전에

서 득점왕을 차지할 만큼 슛과 개인기가 강한 유병재 선수 등의 포진으로 공격과 수비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들의 은메달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타대학 농구부보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이룩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훈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본교 농구부는 체육관에서 수업이 없을 때만 훈련을 할 수 있어, 타 학교를 전전하며 연습게임을 다닌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겨울에는 온풍기 설치가 돼있지 않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기 일쑤다. 게다가 선수들의 부상을 관리해주는 전문 트레이너도 없어 경미한 부상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맥 빠지게 하는 것은 농구부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팀빈 관중석을 보면 일단 힘도 빠지죠. 우리학교에 농구부가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선수들은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학우들의 무관심은 농구부 뿐 아니라 축구부, 야구부 등 본교 체육부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제 선수들은 열을 앞으로 다가온 농구대잔치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갔다. “지난 대회가 힘들었던 만큼 정신력은 더 좋아진 것 같다”며 더욱 열심히 훈련하는 그들에게 또 한번의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지어주길 기대해 본다. <민>
 mh705@dongguk.edu

노무현보다 언론이 더 나쁘다

이제까지 몇 번의 대선을 보아왔지만 내 가슴을 울렸던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노무현은 나를 여러모로 감동시켰다. 자신들의 생업도 얼마간 손을 놓고 노무현만을 위해 뛰었던 '노사모'라는 단체를 보며, 정치인 노무현을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고 그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다. 물론 기대 이하의 국정수행 능력이 실망스럽고 화도 나지만, 언론은 그를 철저히 주눅 들게 했다.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등 일부 수구신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후 거의 매일 그에 대한 비판 기사로 지면을 활애하고 있다.
 물론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만 하는 건 당연하다.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만 하는 건 당

연하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문제될 만한 말 한마디만을 가지고 법석을 떠는 언론은 또 어떻게 평가돼야 할 것인가.
 수구언론은 이제 의도적 흡집 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매일 1면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대통령 비판·비하기사를 보며 국민들은 점차 노무현을, 또 정부를 불신하고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다.
 계속 실망스러우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관심을 '끄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신문들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나친 비판, 의도적 비하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대영 (사과대)>

투표! 외면하지 말자

지난 5일 자정이 다된 시간이었다. 서둘러 중앙도서관을 나가는데 층도 앞에 대여섯의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다. '뭘지?' 하며 지나치려는데 문득 누군가 나를 불러 세웠다. 이번엔 총학생회장에게 출마하는 후보라며 투표를 부탁하고 약속을 청해왔다. 그 후보는 자신에게 한 표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부탁하고 있었다.
 올해도 총학생회 선거가 돌아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거에는 무관심한 듯 보인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총학생회의 활동이 개인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한총련의 대외적인 활동 때문에 학내 문제, 예를 들어 공간이

전 문제나 유명 언론들의 대화평가에 소극적인 대처 등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들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저마다 학점관리에 힘쓰느라 학생회 활동들과 선거에 신경을 못쓰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 선거는 우리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자 없이는 자개는 학내 축제를 포함해 크개는 등등 개 책정협외와 같이 재학생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워진다. 총학생회는 겉으로 많은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학내의 문제해결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선을 위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표 자체를 호소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처럼 총학생회가 무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철 (사과대 행정2)>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구성원 참여·관심 이끄는 역할 돋보여 교수채용 문제의 심각성 잘 전달해
 지난호 동대신문을 살펴보면, 학내의 다양한 행사 소개 및 해설 기사가 다수 포함되어 학내 구성원의 행사 참여와 학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1면의 해설 기사는 예전의 총학생회 선거 기사와는 사뭇 다른 시각에서 요즘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점에서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된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선거공약들이 잘 지켜져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약집중단 등의 기구설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제시는 앞으로 학생회를 이끌어 갈 학생회 일꾼에게 좋은 거름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3면 해설 보도면에 시리즈로 연재 되고 있는 '동국발전은 교육의 질 향상부터'의 4번째 기사로 '교수 채용'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도표화 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잘 전달하고 취재 기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기사였다. 4면의 '장애인 동행 프로' 기획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장애인으로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다.
 마지막으로, 1면과 8면이 칼라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면에 비해 1면이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호 1면을 보면 사진을 제외하고는 색 처리가 미흡하거나 지나치게 어두운 색을 사용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여 1면에서 연재하고 있는 기획광고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 신선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광고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활기찬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호규 (신문방송학과 교수)



동국광장

축하합니다
 △11월 12일 신문방송학과 소모임 가면 유희 6기 짱 임하나 생일을 축하합니다.
 △중암비서 혜정아, 생일 정말로 축하해. -20대 아홉 전설을 위한 사람들
 △타노세 공연 축하해요. 블블도 공연 멋졌어요.
 △효진아~ 생일 축하한다. 알지? 싸! -철호
 △신방과 99 윤승호 생일 축하한다.
 △주현이가 가슴에 멍이 사라진 날.
 △경영학과 정우형 별써 100일 됐네요. 한터싸요. -KHU
 △광고학과 박민우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광고학과 S
 △행정 이소진 양 생일 축하해요. -이재인
 △경영학과 지원아! 결혼축하해. 널 잊지 못할거야. 아들이면 날 닮았길 바래. -가창주체 짹짹
 △11월 8일 토요일 늦은 6시 학림관 소강당 더불어 노래하는 세상 공연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밥이나 많이 먹자. Dussa25기 남아들아. -MZ
 △삼육원 그 품집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 △민심아! 얼마 있으면 군대 가는데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와라. -병일형
 △M.T 가서 두고 봐요. 호동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영식이 생일을 축하해요. -dgu13
 △'테란의 황제' 임오환! 우승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프리미어리그, 스타리그 우승하세요!
 △50일간의 중간고사가 끝났다 수고했

△일선아 수능 친다고 수고했어 이제 돌아와.
 △강성식 씨! 앞으로도 열심히 소주 드세요 파이팅!
 △변경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 △행정00 박인수, 성신여대 03 이쁜 빨간 거북이 사랑 열심히~!
 △어깨동무 선분 36대 총학생회 반드시 건설합니다. -정
 △동욱아! CPA 공부 열심히 해라. 유 △단풍엔 관공 한마당! 열심히 합시다. -장
 △20대 야강강과 자주적 총학생회 반드시 건설하자 김운권, 채정석 파이팅! -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관리 수업 내비효과팀! 수고하셨습니다.
 △더노세 공연 준비 기간 동안 구박 많이 해서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가창주체 짹짹
 △11월 8일 토요일 늦은 6시 학림관 소강당 더불어 노래하는 세상 공연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밥이나 많이 먹자. Dussa25기 남아들아. -MZ
 △삼육원 그 품집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 △민심아! 얼마 있으면 군대 가는데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와라. -병일형
 △M.T 가서 두고 봐요. 호동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영식이 생일을 축하해요. -dgu13
 △'테란의 황제' 임오환! 우승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프리미어리그, 스타리그 우승하세요!

다 친구들. DUSSA 25기 파이팅!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랑 놀이주셔서, -28기 따오밍스
 △유진아, 살찌우느라 수고했어. △강선아 4년동안 수고했다. -DUBS 40기
 △BESLAP 여러분! 로봏대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우승을. -박정현
 △오디션 보느라 수고했다. 더 연습해서 멋진 방송 해보렴. -44기
 △수고했습니다. 우리 손사의 사랑동이 여러분! 수화경연대회 큰 무리없이 잘 끝나서 무척 기뻐요. -23기
 그리고...
 △11월 8일 토요일 늦은 6시 학림관 소강당 더불어 노래하는 세상 공연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밥이나 많이 먹자. Dussa25기 남아들아. -MZ
 △삼육원 그 품집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 △민심아! 얼마 있으면 군대 가는데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와라. -병일형
 △M.T 가서 두고 봐요. 호동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영식이 생일을 축하해요. -dgu13
 △'테란의 황제' 임오환! 우승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프리미어리그, 스타리그 우승하세요!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10)	순두부찌개 (1300) 오징어가스 (1500) 콩나물비빔밥 (1500)	소고기담면탕 (1500) 체육콩나물볶음 (1500) 미트스틱우유밥 (1500)	된장찌개 (3000) 떡갈치찌개 (3200) 불낙볶음 (3200)
화 (11/11)	영양갈비탕 (2000) 간자장밥 (1500) 체육볶음 (1500)	사골우거지탕 (1500) 순살돈가스 (1500) 오징어떡볶이 (1500)	된장찌개 (3000) 육개장 (3200) 공치구이 (3200)
수 (11/12)	사골곰탕 (1500) 김치볶음밥 (1500) 미트볼우유밥 (1500)	햄숙어찌개 (1500) 불고기백반 (1800) 나물비빔밥 (1500)	된장찌개 (3000) 오징어찌개 (3200) 닭조림 (3200)
목 (11/13)	징타국밥 (1500) 돈갈비찜 (1800) 치킨샐러드 (1500)	콩나물국밥 (1500) 치킨볶음밥 (1500) 스파게티 (1500)	된장찌개 (3000) 떡대기불고기 (3500) 황태구이 (3500)
금 (11/14)	너비미니백반 (1500) 짐채밥 (1500) 오무라이스 (1500)	어묵우동 (1500) 소고기키레 (1500) 리조육 (1500)	된장찌개 (3000) 초밥우동 (3500) 모듬볶음밥 (3000)

■ 금주의 추천메뉴 ■
 사골우거지탕 (상록원 화요일 조식)
 폭 고은 육수에 배추우거지와 고기를 이용하여 끓인 음식으로서 국물이 시원하고 맛이 담백하다.
 추운 겨울 든든한 아침식사로 제격이다.
 안순실 (상록원식당 영양사)

달하나 천강에



이명연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요즘은 핸드폰은 전화했다는 표시를 요란하게 외친다. 각종 유행가부터 시작해서 아기목소리까지, 취향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64화음을 이용한 최신곡은 한번 들어보라는 듯이 여기저기 울려 퍼진다.

내 연구실은 동국대 4층이다 학생들의 지나감이나 무척이나 많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5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에서 가끔 '내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내는 학생들이 많다. 어떤 구두인지만 본 적은 없지만 발걸음마다 계단에 부딪치며 내는 소리는 내 연구실에 정확하게 들려 온다. 복도를 뛰어가야만 하는 학생들의 거친 소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선후배간의 인사말과 재잘거림도 연구실 유리창을 뛰어 넘어 들어온다. 내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표현해야만 한다.

문제는 계단과 복도만이 아니다. 매일 정확하게 오전 11시 30분부터 그리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연구실 밖의

작은 공간에서 우유짜기가 진행된다. 오랜 연습을 통한 묘기에 가까운 동작들이 나오고 탄성과 아쉬움의 감탄사가 동국관을 둘러싸고 퍼진다.

오래 전 이야기다. 한번은 내가 우유짜기를 차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생각해봐도)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마치 자신들의 유일한 건강활동을 못하게 하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나를 둘러싼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까지 느꼈다.

오후가 되면 그리고 밤늦게까지 장구와 팽과리 소리가 우리 학교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운동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구소리와 팽과리 소리는 정확하게 동국관에서 메아리친다. 운동장 너머에서 보이는 그 장소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인 나무담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별 효과가 없다. 학교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인내가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이제 11월이고 각 전공이나 학과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축제형식의 행사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도 동국관을 중심으로 낮에는 임시무대가 설치되고 조그만 공간에 엄청난 스피커가 설치되어 그동안 노래방에서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위지는 날씨에 구경꾼은 많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노랫소리는 벌써 어두워진 목errick과 미리내골을 깨우고 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상에 살고 있다. 내 핸드폰 소리에서부터 대형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까지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메아리는 말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찌푸림과 중얼거림이다. 살아있는 학교가 꼭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 우리 각자는 내가 살아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내를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 교직원, 학교는 이러한 일상적인 소리와 소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없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지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치논리에 떠밀린 신행정수도 건설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모두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물론, 이 비용중엔 주택 및 상업시설 등의 민간투자 34조와 과천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 8천억원이 총당되어 실제로 8조원 정도라고는 하나, 장기적인 실업문제와 기업의 이점이 따른 경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마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정치논리에 휘말려 사용해야 하는가.

물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주택, 교통 문제 등의 폐해를 모르는 바 아니나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차라리 수도이전보다 수도권 리모델링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더구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의 중심도 아닌 충청도에 위치한 수도가 과연 지정학적으로나 규모에서 적절한 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그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함에도 정권유지와 총선을 의식한 '포심잡기'에만 치우친다면 노무현 정권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설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를 이쯤에서 중단하여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우성 (연구개발팀 계장)

대학생 음주 문화 주체는 바로 '우리'

지극 같은 입시를 거쳐 힘들게 대학에 오게 되면, 대학생들은 지난 세월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뜻이 다양한 문화를 섭렵, 공유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학생이 당연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되는 절묘한 코드가 바로 '술'이다.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준비한 혹독한 음주 신고식을 통해 본격적인 성인의 음주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의 각종 술자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주(酒)인이 된다. 아버지가 따라주시는 약주잔에 쓴 맛을 느꼈다면, 이제는 술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느끼며 그 분위기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음주에 익숙해진 우리네 대학생들은 술을 단지 마실 거리가 아니라, M.T와 게임 등에 접목시켜 단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오락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사람은 어느 정도 술취하게 되면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의 이러한 긍정적 기능의 이면에는 강제적인 음주 행위와 폭음 등으로 각종 폭력행위와 음주운전을 야기하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단점도 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사람과 모임에 대한 애정이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학생들의 잘못된 술자리가 내 동기, 내 선·후배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대학생이 어엿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폭넓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만큼의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대학의 음주 문화의 주체는 바로 '대학생'이다. 오늘 술자리는 강제적인 음주의 권유와 폭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올바른 음주 문화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병호 (사과대 신병2)

동문이 띄우는 글 모든 주체가 재도약 위해 합심해야 할 것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모교가 지난 9월 대학종합평가에서 전체 대학 중, 30위권이라는 초라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발전 계획안을 내놓았다고 하니, 앞으로 동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를 지켜보고자 하니, 그에 앞서 몇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학교도 역시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든든한 자본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대학은 재단에서 나오는 전입금이 1년에 200억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대학은 부지를 매매하여 1천 600억원의 재단 전입금과 동시에 매년 임대수익을 통한 200억원의 전입금을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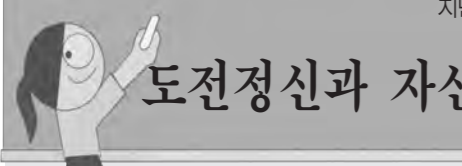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 학교는 발전을 위해서 풍족한 재정여건에만 기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학교 운영주체의 경영마인드와 노력이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각오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성이나 각오가 없다면 자라다툼만 하지 말고 대응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스스로가 절대로 전국 10위권 이하의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2년 28대 1의 경쟁을 뚫고 경영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타 대학과 비교하여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주체는 비운영주체든 우선 합심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여 주십시오. 모교는 불교 종단의 학교인데 불교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불교종단 대학의 발전이 곧 종단의 발전임을 재단이사장 및 종단 관계자 분들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어떠하든 긴장하여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 없이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동창회회장단 모임에서 분교가 향후 전체 대학 10위권 내에 들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동국인의 한 사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백행 (ROTC 총동문회 회장·경영학과 62학번)

③ 현대 스페인어 김성조 교수(감사)



나는 원래부터 외국어 배우기를 좋아한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할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페인어는 과거에 접해본 경험도 없었던 내가 중급 수준의 현대 스페인어를 수강한 것은 다소 무모한(?) 선택이었다.

따라가기 힘들면 다른 과목으로 정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첫 날 수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강사님은 스페인어를 처음 접하는 나와 친구를 위해 몇 주간 스페인어 기초를 강의하시기로 했다. 첫 날 강의시간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한 학기 후 여러분을 남미지역이나 스페인어는 지방에 꼭 떨어뜨려 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나와 친구에게 특별히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열정을 쏟았다. 강사님의 첫날 모습을 믿고 무작정 따르기로 했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몇 주 후 기초과정이 끝나고 20여명의 모든 수강생들이 같은 내용의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었다.

김수민 (문과대 독일2)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지난 9월 본교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좋은 강의' 원고 모집에 선정된 여섯 편의 글을 차례로 읽는다. 편집자

교수님은 단순히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스페인어권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무엇보다도 이 강의의 백미는 바로 '스페인어 노래자랑'이었다. 조별로 선정한 스페인어 노래를 외워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다.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일부러 모르는 사람들을 한 조로 묶을 정도로 치밀했다. 우리는 노래에 대한 안무와 배경, 소품을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했고, 멋지게 잘 했다. 스페인어 노래 자랑은 스페인어 학습 뿐 아니라 문화 체험, 수강생간의 친밀감 형성 등 정말 많은 것을 낳았다.

또한 단순히 교재를 보면서 필기하고 외우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페인어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회화 표현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고 수업 시간에 자주 주석으로 짧은 연극을 하기도 했다.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열정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울 수 있었다.

김수민 (문과대 독일2)

④ 인도 불교의 기원과 발전 김미숙 교수(감사)

다섯째, 토론을 유도하셨다. 김 교수님은 출석 대응으로 활용했던 쪽지에 간단한 시험이나 질문을 적도록 했고 다음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많은 질문 내용들을 점검하고 오셔서 작성자들에게 수업 이외의 남은 시간에 일일이 코멘트를 해 주셨고 중요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 내셨다. 그 많은 인원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토론편 수업을 이끄는 능력이 그때 알았고 그것은 아마 교수님의 성실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험지와 리포트를 모두 참석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심지어 맞춤법까지 교정을 바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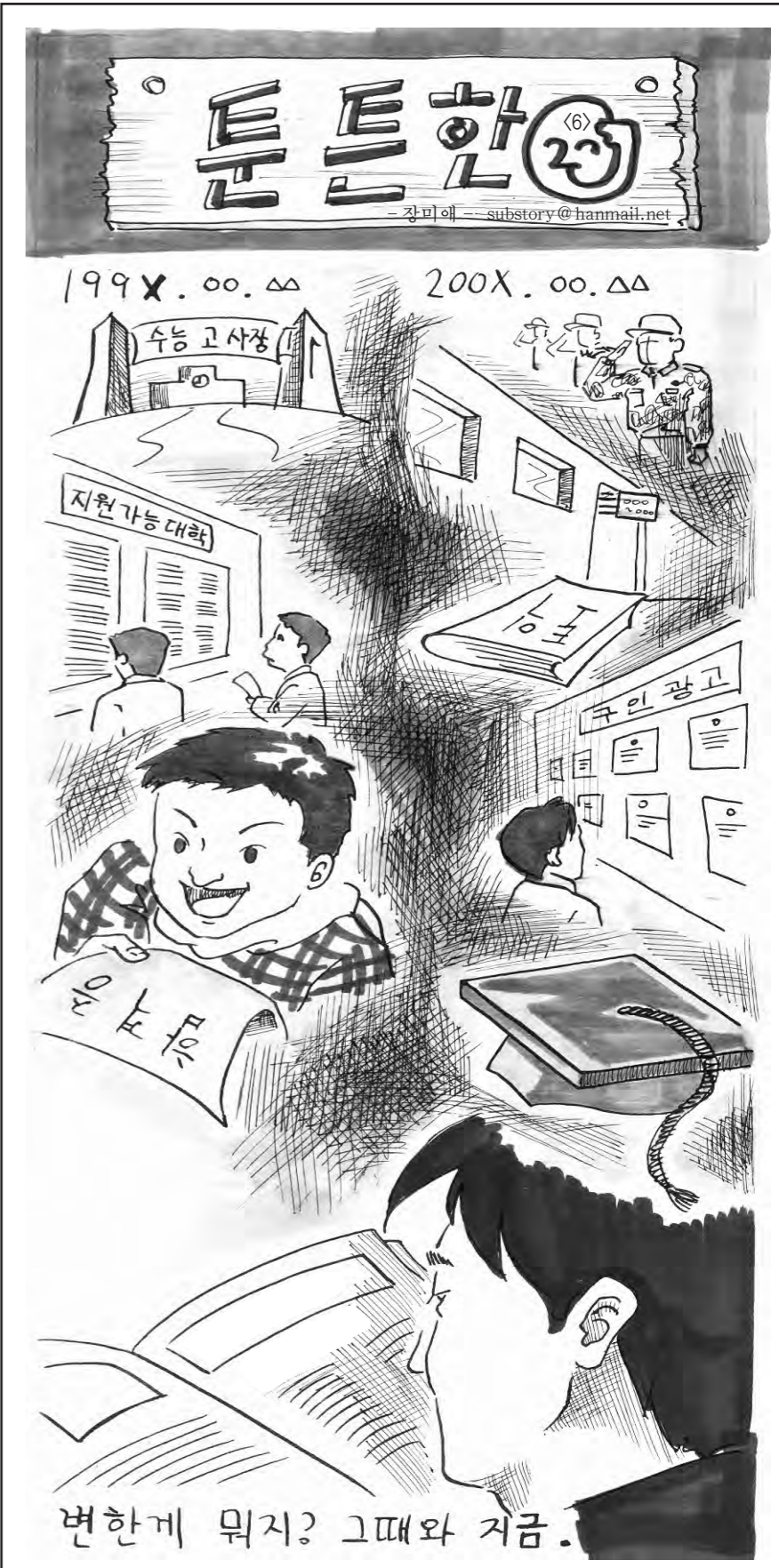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부터 갈등해왔던 토목환경공학과에서 인도철학과의 전과를 과감하게 결정하게 되었다. 이 정도 성실한 교수님이 계시는 학과라면 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교육환경에서 용기있게 위의 사항들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김 교수님의 강의가 더 빛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유진 (불교대 인철4)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가르쳐준 강의

성실한 수업에 영향 받아 전공도 바꿔



본 칼럼은 우리 사회, 우리 대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 신설되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대한다. 편집자



세상읽기
권오정
사범대 교육2

자살 '권하는' 사회

작년이었다. 무리한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1주년 후 한 고3 수험생이 그 차가운 선로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고, 누구는 '국익'이다 좋아하고 내 친구는 이라크로 자원한다 한다.

배달호 열사, 이경해 열사에 이어 한진 중공업 김주익 노조지부장이 크레인에 목을 매고 투신과 자살은 열사를 전염병처럼 만들어 나갔다. 나의 뒤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를 외치며 불길로 치솟았던 이용석 동지는 결국 죽음과 분노로 통보되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한 아버지는 카드 빚에 못 이겨 자식의 산소호흡기를 빼고, 수능 당일 1교시를 마친 수험생이 꿈을 꾸듯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가 하더니, 다음날 가채점에 비관한 한 소녀는 유서를 남겼다. 우리는 영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2003년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자살이 암 다음의 사망률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인간이 돈·점수에 짓눌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 보자

세상이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왜 죽어, 살아야지', '죽는다고 해결될까'라는 헛된 감상이 아직도 나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하철참사는 한 명의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로 매도되었고 자본과 언론은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보며 '강경노조', '경제' 운운하며 덮어두기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수험생 후배들의 자살 역시 단지 '철없음'으로, 소위 '명문대'에 왔다는 위안으로 삼을 것인가.

자살이 암 다음의 사망률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인간이 돈·점수에 짓눌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보자.

나는 자본과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비정규직제를 반대한다. 그리고 총과 폭력 억압보다, 무관심과 이기심이 더욱 강력한 적이 된 이 시대에서 파병과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익과 평화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정치자금의 사대질은 집어치워라. 이제 그만 민중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라. 또한 너희들의 장례식을 치러라.



‘미소’ 박경희 감독을 만나

“안정적 배급제도 뒷받침 돼야 우리 예술영화 ‘미소’ 지을 것”



박경희 감독

- ‘미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려곡절이 많았다던데.

= 많은 영화사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제작 과정에서 무산이 반복됐다. 예술영화 성격으로 쓴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충무로’의 지원 없이는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만들지 않고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면 이 영화에 풀어나고자 했던 정서나 세계관을 끌고 갈 것 같았다.

때마침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해 제작하자는 입센레 감독의 제의가 있었고, 주인공인 배우 추상미 씨도 무보수로 출연해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 여성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특별히 여성 영화를 찍고자한 것은 아니다. 감독과 프로듀서, 그리고 주인공까지 모두 여성이라 좀 더 솔직하게 여성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영화 속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여류 사진가는 주저않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사유한다. 서울여성영화제 남인영 프로그래머의 말을 빌리자면, “고통받는 여성이 아닌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여성”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

- ‘충무로’ 특성상 예술영화는 일반 극장에서 개봉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국 영화 배급 구조에 대한 의견은.

= ‘미소’의 경우 올해 가을에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기됐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먼저 배급 자체가 덜 상업적인 영화도 안정적인 배

급망을 탈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개봉하더라도 관객이 없다고 며칠만에 내릴 것이 아니라 의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술영화가 활발하게 상영되는 파리는 영화를 보고자하는 관객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영사기를 돌린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에서 관객들이 헐리우드식 영화에만 열광하지 않음을 깨닫지 않았다.

- 현재 작업중인 영화는.

= 한국영화아카데미 20주년을 맞아 허진호, 봉준호 감독 등 20여명의 감독이 모여 ‘20(異共)’이라는 주제로 단편 디지털 영화를 만든다. 5분 분량의 오픈버스 영화로 모바일을 통해 12월부터 한 편씩 상영할 계획이다. 난 이번 디지털 영화에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는 남녀의 모습을 통해 ‘이공’을 표현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좋은 영화는 만든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관객과의 호흡 역시 무척 중요하다. ‘미소’에 대한 국내외 영화계의 평보다는 일반 관객들과의 만남이 더 큰 기대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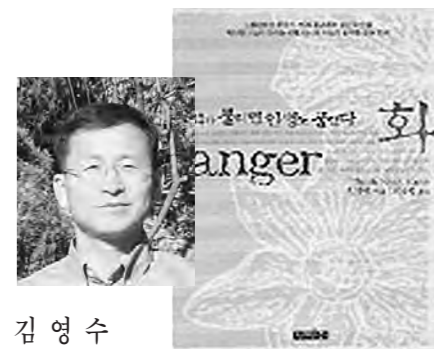
또한 차기작으로 준비중인 장편 시나리오에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작해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문화일기

내 생애 최고의 ○○

호흡수련 통해
순수한 ‘나’를 찾아
도서 -



김영수
언어연구교육원 과장

세상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고요한 숲 속에 앉아 숨을 쉰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하나, 둘, 셋 내쉬는 숨을 열까지 세어보자. 이 자세로 움직이지 말고 열까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부처님이 경전으로 알려 준 호흡을 통한 수련방법을 틱낫한 스님의 여러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조용한 곳에 바로 앉아 나의 숨을 의식하라. 숨이 나갈 때 마다 세어라. 열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반복하여 세며 계속하라. 거기에 너의 생명이 있다. 나의 정신과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숨이다. 이 단순한 숨이 어느 순간 그치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산, 나무, 물과 이별이고 혹시 미워하는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도 끊어진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이입에 따른 집착에서 벗어나 순수한 나를 찾는 방법을 호흡수련을 통하여 터득하라.

이 쉬운 사실 그리고 숨만큼 가벼운 나의 존재. 나는 기쁨에 뜨겁고 미움에 속상해 한다. 웃음과 짜증이 하루에도 수없이 교차한다. 40년을 살아 온 서울을 빠져나와 수 년째 살고 있는 의정부 민락동 뒤엔 넓은 눈을 사이에 두고 광릉수목원을 감싸안은 소리봉이 있다. 나라의 보호를 받는 이 광활한 숲 속엔

인적이 닿지 않는 개울이 여럿 있고 아름답디랴 무엇이 무성히 자라고 있다. 틱낫한 스님의 저서를 읽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 그 곳으로 들어가 숨을 세는 일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을 살짝 감고 명상하는 동안 온갖 망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제가 경직되고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고, 망상에 정신을 빼앗겨 숨 쉰수를 잊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어느새 열이 넘어갔다. 점차 숨에 집중하면서 열까지 반복하여 세는 것이 쉬워졌고 숨과 숨 사이에 떠오르는 감정 섞인 장면들이 나의 조절통제권 안에 들어왔다. 그 장면 속의 주인공들이 나의 상대가 아니고 나와 거리를 둔 제3자로 바뀌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마음속엔 여유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은 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벌어진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고 즐겁거나 화나게 하는 것들만 의식에 들어오고 나의 감정을 지배한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다시 숨을 쉰다. 이제는 숲에서만 아니라 이른 아침 방 안에서도 하고 있다. 감정의 질곡에서 벗어나 순수한 나를 찾는 쉬운 방법을 알려 준 틱낫한 스님의 저서는 잊지 못할 것이다.

4년 간의 열정이 빚어낸 솜씨자랑전

미술학부 졸업전시회 열려 ... 작품해설 부재 아쉬워

초등학생 시절 방학이 끝나면 열리는 방학과제물 전시회에 자신의 수수깡 배 하나가 전시될 때의 떨림과 뿌듯함을 누구나 한번쯤 느껴보았을 것이다. 본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졸업생들에게도 지난 4년여간 쌓아온 자신의 기량을 떨리는 마음으로 선보이는 ‘작은 전시회’가 마련됐다.

지난 3일부터 6일간 문화관 갤러리 동국과 각 과 실습실에서 열린 ‘2003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졸업작품전’에는 한국화·서양화·조소·불교미술전공 총 53명 졸업생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출품된 작품들은 각 전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을 내뿜는다.

한국화 작품은 주로 전통 수묵과 채색 등의 기법을 사용했다. 독특한 기법과 함께 주제면에서도 작가만의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다.

서로 다른 크기의 연꽃을 겹쳐서 그린 작품인 ‘靑’에 대해 작가인 허윤경(한국화4)양은 “친숙한 것만 보

는 사람들의 시각 뒤에 가려진 이면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양화 부문에서는 회화 작품부터 초그림을 사용해 그린 ‘View’(순수진작), 지하철의 사람들을 몰래 스케치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지하철에서 김산영 보셨어요?’(김산영작) 등 평소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를 발전시킨 기발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조소전공 작품 중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까지 담아내고자 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백광호(조소4)군은 자신의 작품 ‘untitled’와 관련해 “의자라는 소재에서 의자의 본 기능인 ‘앉는 기능’을 잃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망각한 우리의 사회상을 비판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불교미술 전시실에서도 고려불화와 조선불화를 모사한 것에서부터 작가가 창작한 작품까지, 절에 실제로 봉안해도 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수한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일반 관람객들의 모습.

그러나 작품명 옆에 해설이 없어 미술작품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과 갤러리 내 상근 큐레이터가 없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같은 학내 전시회를 보다 열린 공간에서 진행해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

mh705@dongguk.edu

문화단신

광화문 청사 민간매각 반대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 건물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부 움직임에 문화예술계가 반기를 들었다.

문화예술계 인사 80여명은 성명을 통해 지난 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실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화문 청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광화문권역이 가지는 문화적 공공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매각하고 상업적 공간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오늘(10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권역 민간매각 저지 및 시민문화공간 만들기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신춘문예 창작만화 공모

‘경향신춘문예’가 올해부터 국내 일간지 최초로 단편창작만화를 공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소설 등 문학작품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 받아온 만화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예 장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만화계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한국만화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모는 A4~A3 내의 8~32쪽의 3편 이하 단편만화로 다음달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문의 3701-1211~6



2006. 5. 8. 건학100주년 D-918

시시하게 살지 말자

평생을 지켜온 믿음입니다.
내 아들 딸은 물론, 이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동국대학교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	비고
가군 (서울, 광주)	12.10(수) ~ 12.15(월)	12.19(금) ~ 12.23(화)	100%인터넷 원서접수 www.uway.com/www.dongguk.edu * 당. 가군 특별전형대상자중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당캠퍼스(서울, 광주)학생생활실에서 직접 접수함.
나군 (서울)		2004.1.6(화) ~ 1.10(토)	
다군 (광주)		2004.1.19(월)	

* 모집요강은 홈페이지 참조

서울캠퍼스 학생선발실: 02)2260-3031~4 광주캠퍼스 학생선발실: 054)770-2031~4

www.dongguk.edu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학사제도] 조기졸업제 / 복수전공제 / 학업지도교수제 / 외국어 PASS제 / 사회봉사 적립통장제 / 동국참사람 인증제 / 공학교육 인증제

매체비평

TV 편

비타민

“스타 몸 나이만 집중 건강 계량화 우려”



건강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KBS 2TV '비타민'.

“몸”은 단순한 외양이 아닌 자아의 연장선으로 읽히는 시대이다. 헬스와 스파, 에스테틱과 네일샵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

여겨지고 있다. KBS 2TV에서는 이러한 몸에 대한 관심을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가미한 쇼로 가공하여 일요일 밤 10시에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중이다. '비타민'은 '국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본 취지에 어울리는지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은 '스타스타 건강학'이라는 코너로 시작한다. 프로그램에서 23~25분 가량을 차지하는 이 코너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당신의 00나이는?'이다. 전문의가 신체 부위의 나이를 진단하고 나이를 표시하는 숫자가 슬롯머신처럼 위아래로 돌기 시작하면 패널들은 긴장하기 시작한다. 이효리는 '허리 나이'가 17세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른 방영분에서 DJ DOC 정재윤은 '위 나이'가 43세라는 진단을 받

었다. 17세의 젊은 '허리 나이'는 46세의 늙은 '위 나이'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이 나이는 실제로 17세 여고생이 46세의 중년남보다 건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치수는 자신의 건강을 어떤 기준 항목을 두고 측정해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건강 자체를 계량화하여,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곧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줄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2003년 국민건강 캠페인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한 '뱃살을 줄여라' 코너에서는 리포터 이창명이 걸거리를 돌아다니며 똥똥한 사람을 붙잡아 허리 사이즈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허리가 36이나 38인 사람들은 심하게 면박을 주고 그 자리에서 살을 빼 것을 거족에게 다짐시키기도 한다. 살을 빼지 않으면 걸릴 수 있

는 질병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은 가히 위협적이다. '장수의 밥상'은 각 나라의 장수노인이 추천하는 음식들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그러나 장수는 여러 이유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단 한 가지 음식으로 장수의 근거를 삼는 것은 결국 그때그때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만들어낼 뿐, 올바른 분석에는 다른 각도에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황금의 10분: 정신 건강 시리즈'는 '수줍음도 병이다(11회)' '현대사회 신종질병! 쇼킹중독!(12회)' 등 구색 맞추기 정신 질환 소개 코너이다.

'비타민'은 전문의가 제시하는 올바른 건강 상식을 전해준다는 점, 시의성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건강한 삶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비타민'은 건강한 몸보다 젊은 몸

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비타민'은 건강을 몸의 젊은 '나이'로 수치화하는 것에 열중한다. '스타스타 건강학' 외의 코너들은 매 회 뒤로 순서가 바뀌고 불규칙하다.

진정한 국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스타의 몸, 그리고 나이 측정하기에 치중한다. 원 포맷에 있어서도 SBS '맨투맨'의 출연자 건강나이 재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귀중한 일요일 밤 10시에 전과를 타는 '비타민'이 타 프로와 반복되는, 연예인들의 내장까지 들여다보는 식의 선정적인 건강나이 측정을 지양하고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 가 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매니아의 또 다른 이름 '페인'이 뜬다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페인문화 문화코드로 오프라인까지 이어져 네티즌 '다모페인' 선례로 문화 공유부터 재생산까지 영향력 발휘

인터넷 페인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현실 생활보다는 사이버 현실을 선택한 인터넷 중독자들로, 다른 하나는 새로운 매니아들로. 사실 인터넷 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자쪽에 가깝다. 인터넷 페인을 지칭하는 말로 쿼치니스트, 주잡야할, 면식생활 등이 언급된다. 한마디로 그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고, 모든 의식주를 인터넷 앞에서 해결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인터넷 속성에 기인

하지만 실상 우리옆에 존재하는 페인들의 모습이 그러할까. 인터넷 페인들의 모습은 인터넷이 가지는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가·일이 함께 만나는 사이버 공간속에서 어쩌면 윈스턴 라이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텔레비전이 지배하던 시대에 케이블·위성 등의 등장은 '통제혁명(control revolution)'이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참여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채널의 선택권만을 부여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생산권을 부여했다.

신조어 생성으로 시작

인터넷 페인의 원조는 '디씨인사이드'로 넘어간다. '아햏햏'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행자라 칭하던 그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 포스터·사진들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그려내면서 '엽기'라는 코드로 불리워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들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얼마전 끝난 드라마를 향한 다모페인들은 방영 전후에 모든 게시판을 '하오체'로 덮어가면서 그들의 드라마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 그리고 '다모소식지'를 발행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드라마의 결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인터넷은 이용자들이 목적지향적으로 문치게 만든다. 성·연령·학벌 등의 기존의 질서·구조·기준들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내부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손쉬워졌으며 자신과 같은 목적(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만나기는 너무나 쉬워진 셈이다. 사실 언더그라운드 치부되어왔던 하위문화들이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인터넷이 가진 속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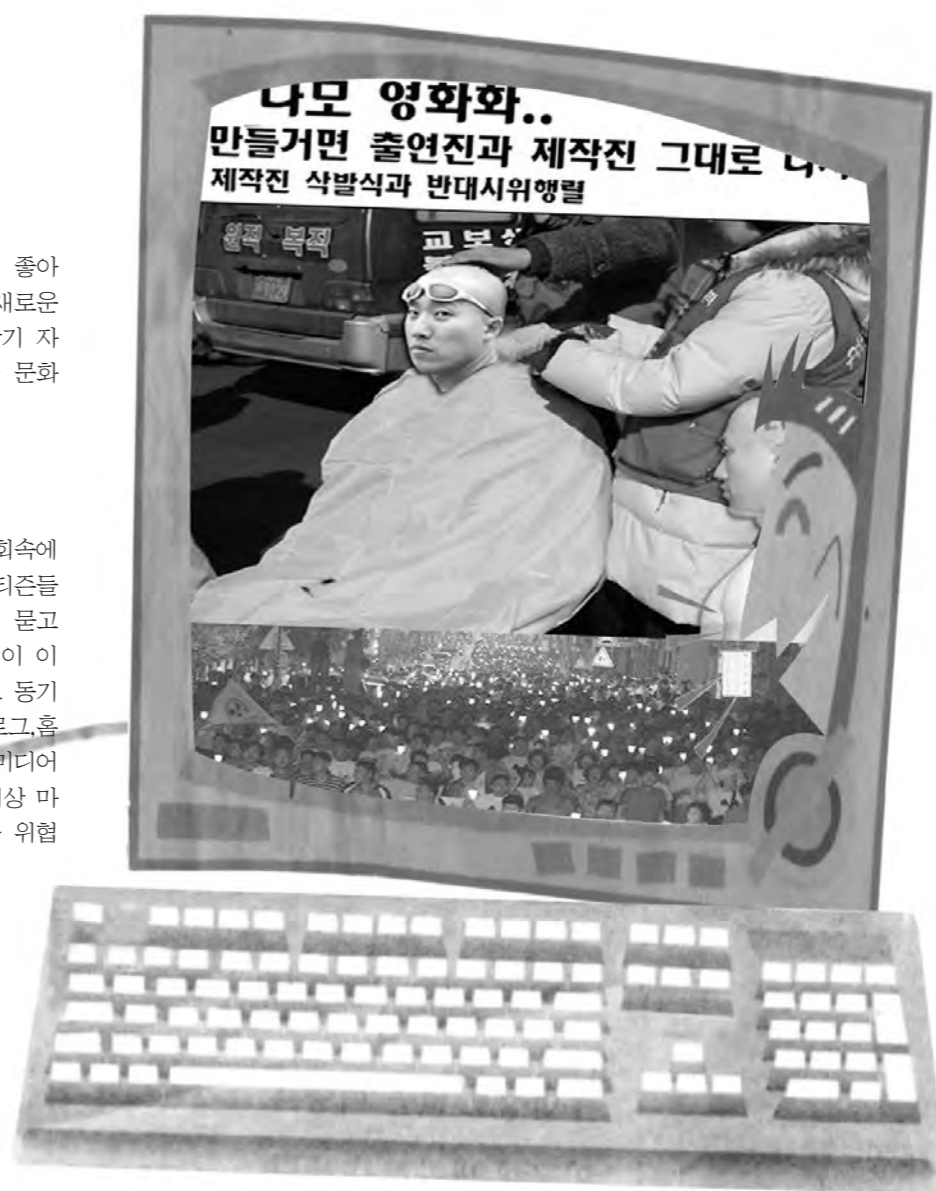
그래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함께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말이다.

네티즌의 힘

네티즌들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속에서 매니아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새로운 정보를 동료인 네티즌들에게 묻고 있으며, 2003년을 강타한 P2P와 지식검색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목적, 취향, 그리고 동기는 네티즌들을 전문가로 이끌어낸다. 블로그,홈피의 확산은 네티즌들에게 새로운 개인미디어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네티즌들은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니다. 오히려 매스미디어를 위협할 정도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2003년 한국의 네티즌들은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낸다. '문화는 내가 정의하고 만든다.' 그리고 네티즌들에게 이것은 자부심이며 정체성이다.

김 양 은 사이버문화연구소장



혹시 당신도?

○○안에 자신이 요즘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넣어 해당 개수를 체크해 보세요.

- △ 나는 하루라도 ○○와 관련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 △ ○○은 나에게 안정을 주며 동시에 흥미를 자극한다.
- △ 나는 요즘 식사시간,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 △ ○○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정신이 맑아지곤 한다.
- △ 인터넷을 통해 하루 한 두시간 이상은 ○○와 관련한 사이트를 검색하곤 한다.
- △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 나의 이야기거리는 언제나 ○○다.
- △ 누가 뭐하냐고 물으면 난 항상 바쁘다고 대답한다.
- △ ○○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 △ ○○에 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 △ 나는 ○○와 관련한 인터넷 카페를 두개 이상 가입했다.
- △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 생각 좀 그만 하라는 말을 들곤 한다.
- △ ○○로 인해 밤을 지새 적어 한 두 번이다.
- △ 지루한 일상 속에 ○○은 활력소가 되곤 한다.

0 ~ 3 : 아직은 정상인 상태이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라. 당신도 갑자기 페인으로 등극 할 수 있다.
4 ~ 7 : 당신은 페인의 소질이 다분하다. 곧 페인이 될지 모르니 주의하라.
8개 이상 : 당신은 이미 페인이다.

'기분 좋은' 캠퍼스 페인을 만나다

알수록 빠져드는 맑스철학



장진영(철2) 군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아 전공으로 철학과를 선택하고 동아리는 '맑스철학 연구회'에 들어갔다는 장진영(철2) 군.

“전공수업 시간에도 맑스철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 역시 서적이거나 세미나를 통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는 거의 모든 하루를 '맑스'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맑스의 사상을 우리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실감해 보고 싶어 평소 관심이 없던 노동자 대회나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장 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맑스철학이라 하면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일면 알수록 흥미로운 학문”이라고 했다.

대학시절의 절반을 맑스철학과 함께 하고 그 속에서 또다른 학문의 재미를 만나고 있다는 장진영 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맑스철학과 관련한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여하며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볼수록 재밌는 일본 애니메이션



장기태(컴공2) 군

진기태(컴공2) 군은 애니메이션, 그 중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화려한 그림과 역동적인 줄거리를 매력으로 꼽는다. 진 군은 짧게는 하루 30분 정도부터 길게는 3~4시간까지 애니메이션을 다룬받아 감상한다.

그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만화책으로도 애니메이션을 즐긴다. “화창시절에는 주로 대여점에서 빌려왔지만 이제는 거의 구입해서 봐요”라고 말하는 진 군은 150여권의 만화책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만화와 관련한 별다른 동호회 활동은 하지 않지만 만화 행사인 아카(ACA)나 코믹월드에 참여해 관심있는 만화에 대한 이모저모를 구경하거나 관련 상품들을 구입한다.

진기태 군은 “직접 창작해보고 싶지만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라고 말하며 현재는 직접 그리기보다 기존의 만화를 따라 그리는 데에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자신이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못지 않은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민) mh705@dongguk.edu

메아리

뒤 하나라도...

▲바야흐로 맞춤형 시대이다. 식료품은 물론 창업강좌까지 맞춤형이 나온다. 가장 보편화된 것은 옷이다. 구매자의 체형을 꼼꼼히 잰 후 제작하므로 기성복보다 훨씬 편하다. 이러한 맞춤형 옷의 또다른 장점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수선을 해준다는 점이다. 길이·폭을 자르고 붙이면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러 비로소 맞춤형이 완성된다.

▲지난 6일 인터넷 오마이뉴스와 조선

일보 독자게시판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이유인즉,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조종중'을 비판한 기사에 대한 두 신문사의 번역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 주제를 요약하는 첫 문장을 살펴보면 오마이뉴스는 '3대 신문의 무게 때문에 보다 독립적인 미디어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한 반면, 조선일보는 '3대 일간지가 더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

다'고 번역했다. 노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독재정권에 의해 그토록 억압당했던 아주 예민한 분야를 개혁하는 대신 억누르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와 '민감한 대통령의 지위를 통해 언론을 강하게 개혁하기보다는 이들의 목을 조르기를 원했던 것 같다'로 차이가 있다. 이를 보고 한 네티즌은 "같은 원문 맞았?"라는 질문까지 던졌다.

▲이번 일은 다음날인 7일 "1등 신문"

이 정정 보도를 냄에 따라 "뉴스게릴라"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핵심은 외신 보도에 '입장'까지 끼워 넣으려 한 조선일보의 관한 목숨에 있다. "파리 특파원이 보낸 기사 원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번역 기사는 왜 '자기네식'으로 쓴 것일까.

▲조선일보의 왜곡 기사는 이제 그리 충격적인 일도 아니다. 다만 외신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라도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외신 보도에

있어서까지 '맞춤형' 기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으로 누구든 원문을 볼 수 있는 오늘날 이 같은 기사작성은 바뀌어야 한다. 고급인재들이 다 모였다고 자찬하는 언론사인만큼,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아니, 혹시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일까.

김하나 문화부장 selllyone@dongguk.edu

동아리·소모임 탐방 - 창업연구 동아리 '프론티어'

“기발한 아이디어 짜내며 취업고민 나뉘요!”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 경험 쌓을 수 있어



프리젠테이션 중인 프론티어 회원들.

창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졸업을 앞둔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익·면접 준비를 위해 학원과 도서관을 바쁘게 오간다.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도서관이 아닌 작은 동아리방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있다. 본교의 창업연구 동아리 프론티어(Frontier)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프론티어는 대학생들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98년 창립한 동아리이다. 이들 중에는 실제 창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학

활동상 기자

생도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입했다. 현재는 10여명의 수습회원과 20여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마케팅·재무관리·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무에 해당하는 아이템 사업화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함께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거쳐 선발된 아이템으로 워크

샵을 준비해 모든 회원에게 인정받으면 정회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1만 여명이 가입해 있는 '한국 창업 대학생 연합'의 소속 동아리이기 때문에 타대학과의 교류, 벤처기업 C.E.O의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넓은 인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이 짜낸 창업 아이템은 가상쇼핑몰, 주식과 문학을 접목시킨 사업 등 기발함을 엿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수상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내외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템으로 꼽는 건 학생들이 즐겨 찾는 노래방에 액정리모컨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론티어의 한 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 떠올린 아이템이라 더욱 애착이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프론티어는 졸업한 선배부터 현재 활동중인 후배까지 적은 액수라도 정기적으로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세희(정통2) 회장은 "이를 통해 좋은 아이템은 투자 설명회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입사요구에 맞춰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들. 틀에 맞춰진 회사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미래를 준비하는 프론티어 회원들의 표정이 유난히 밝은 이유는 아마도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빛으로 그린 세상



하루가 짧다는 말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격증, 토익공부 ... 그리고 취업...

오늘도 깊은 밤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밝은 내일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 18일 새벽 도서관에서

김진성 사진부장
yearn@dongguk.edu

소식

동국문화회 문학의 밤

'동국문화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45대 동국문화회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잃어버린 우산'이라는 시극을 무대에 올린다. 주인공의 감정을 시를 통해 표현하는 시극은 각본에서 연출까지 회원들의 공동 창작으로 이루어진다.

문학의 밤에서는 시극 외에도 △고사 △새내기 △시낭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국문화회는 오는 12일부터 3일간 팔정도에서 시화전을 열기도 한다.

아리랑 정기공연

본교 중앙노래패 '아리랑'이 오는 14일 오후 7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가을 정기공연을 갖는다.

'행복...하세요?'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에서는 전쟁·노동자·취업 등 우리가 평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친근한 민중가요 위주로 선택했던 지난 공연과 달리 평소 쉽게 들을 수 없던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떠나는 그대를 위하여' 등 총 14곡의 노래를 선보인다.

디딤돌 정기 영화제

본교 영화공동체 '디딤돌'이 오는 11일부터 3일간 학림관 소강당에서 가을 정기영화제를 갖는다.

'감독열전'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흥행작보다는 감독과 작품성을 감안해 선정된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감독인 △폴 토마스 앤더슨 △피터 그리너웨이 △크로엔 형제의 작품을 세 편씩 선보인다.

상영시간은 12시·3시·6시이며 오는 목요일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에게 영화제 무료 초대권을 나누어 줄 예정이다.

동그라미 정기 사진전

사진예술 연구회 '동그라미'가 오는 10일부터 3일간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에서 '제34회 정기 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사진전에 출품된 총 36개의 작품들은 '기억'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했다.

'당신과 나의 기억속에 숨겨진 고리를 찾아'라는 기치 아래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Defect of Memory #1 △유 등 동그라미 회원들이 자신만의 기억을 개성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한편 동그라미는 이번 정기 사진전을 지난 5일부터 3일간 중앙도서관 내 전시실에서도 진행했다.

몽게구름 창작 정기공연

창작음악 동아리 '몽게구름'이 오는 21일 오후 7시 본관 중앙당에서 '제22회 몽게구름 창작 정기공연'을 갖는다.

지난해 공연까지는 학생들의 창작곡 이외에 대중가요를 함께 선보여 왔으나 이번 공연에서는 전곡을 모두 학생들이 직접 작곡·편곡한 곡으로 공연한다.

일년 간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곡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연주와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퍼포먼스와 연인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 등도 계획하고 있다.

브라질의 선택 물라

2002년 브라질 첫 좌파 대통령으로 당선된 '물라'의 삶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물라 대통령의 어린 시절, 가족과 친구들의 삶, 그리고 노조 및 정치활동 등의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과 브라질 국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해 나가는 그의 인생 드라마를 보여준다.

부록으로 브라질의 역사와 문화를 간략하게 실어 눈길을 끈다.

브리투 일비스 저/기산출판사/1만 2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가로열쇠

- 추상미와 송일꾼이 열연한 시력을 잃어가는 사진가의 이야기를 그린 박경희 감독의 영화 제목.
- 주로 지방 학생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우리학교는 마련돼 있지 않음.
-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발하는 것.
- 물류산업과 관련한 이론. 학술면 참조.
- 재신임 논란에 오른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매니아들을 부르는 은어. 다모O.
- 위소스키 형제가 만든 미래세계를 배경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에 대항하는 인간들 사이의 대결을 그린 미국영화.

세로열쇠

- 지난 3일부터 6일간 졸업전시회를 선보인 예술대학의 한 학부 이름.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 식품 속의 단백질·지방 등이 효소 등의 작용에 의하여 부패하지 않고 알맞게 분해되어 특유한 맛과 향기를 갖게 만드는 일.
-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학생회선거 역시 단일 후보자가 출마해 OO으로 치른다. 반)경선.
- 학내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꼬집는 분지 보도면 칼럼명.
- 거창한 물건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뛰어난 인물.
- 시사논단의 졸업말. 분지 논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짐.
-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 반적 교환수단.
- 신호를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로 매우 정우성이 출현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함.
- 도로 위 대중 교통수단.

1374호 정답

1	동	거	2	혼	전	3	순	결
연	4	노	동	5	애			
제	6	마	7	8	보	9	운	
10	차	들	11	색	12	라		
13	선	14	로	15	인	16	라	인
17	택	18	리	19	지	20	계	
21	22	23	24	25	26	27	28	29

당첨자

홍대우(경영3)
윤수연(공과대1)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지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11월 24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